

5 사회
교권, 권력이 아닌 권리다

6~7 우리대학 우리선수
대학생 최강자들을 소개합니다!

8 문화
빠지, 제대로 알고 즐겼는가?

10 기획
아시안게임, 전설들이 전하는 이야기

청두 U대회 3위의 주역, 한국체대 대한민국 17개 금메달 중 10개를 따내다



2021 청두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이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중앙부터 시계 방향으로 유도, 태권도, 사격, 펜싱, 체조 순이다. 사진에는 한국체대 선수들도 있다.

제31회 청두 2021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현지 기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진행됐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300여 명의 선수가 15종목에 출전해 금메달 17개, 은메달 18개, 동메달 23개로 총 58개의 메달을 따냈다.

직전 3개 대회에서 각각 108개(종합 1위), 82개(종합 2위), 50개(종합 5위)의 메달을 기록한 것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은 이번 청두에서 종합순위 3위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총 58개의 메달 중
27개는 한국체대가 기록”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이 기록한 총 메달 중 절반에 가까운 개수를 한국체대가 따내며 학우들은 어김없이 존재감을 드러냈다. 한국체대 선수단은 금메달 10개, 은메달 8개, 동메달 10개를 목에 걸었다. 단일국가로 출전했다면 이는 9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강현석 기자 fcnn000@naver.com

금메달의 중심에는 언제나 한국체대

대한민국은 태권도의 종주국답게 해당 종목에서만 7개의 금메달을 따냈다. 이번 대회 종합 1위 중국과 같은 기록으로, 대한민국은 역시 태권도에서 강세를 보였다.

태권도 종목에서 총 8개의 메달을 가져간 한국체대는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기록했다. 개인전에서는 총 3개의 메달을 따냈으며 단체전에서는 5개를 기록했다. 그 뒤로 사격과 양궁이 총 7개와 3개의 메달을 가져갔다.

태권도 남자 단체 결승 금메달, -80kg 준결승 동메달을 기록한 서건우 학우(체육 태권도 22)는 “개인전에서 아쉽게 지고 단체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컨디션이 좋았다. 연습했던 것을 단체전에서 다 보여줄 수 있어 정말 뿌듯했다. 응원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더해 “이전과는 다르게 앞

발을 위주로 훈련하여 더욱 다양한 기술을 구사할 수 있도록 연습했다.”라며 대회 준비 과정을 밝혔다.

이어, 체육학과 태권도 전공 교수인 정광채 스포츠과학대학장은 “무뎉고 습한 청두에서 적응이 힘들었을 텐데 한국체육대학교를 빛내준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라고 선수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했다.

훈련학생처장 김진해 교수도 “사실 예상했던 수치보다 뚜렷한 성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동안의 코로나 19, 학교 기숙사 문제로 여러 퇴관 조치가 있었고 본교 공사 문제도 겹쳐, 훈련량이 과거에 비해 많이 부족했다.”라며 그동안의 상황을 전했다. “또한 중국이라는 곳이 우리나라와 환경이 많이 다르다. 경기장의 협조 및 지원과 같은 문제 때문에 선수들이 100%의 기

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았음에도 한국체대 선수들(재학생)이 금메달 5개, 은메달 4개, 동메달 7개로 총 16개의 메달을 따냈다. 조건에 비해 어느 정도 결과치에 도달할 수 있어 좋게 생각한다.”라고 조금 아쉬웠던 소감을 밝혔다. 이어 “새로운 체력코치 6명을 추가로 섭외해 개강 이후 훈련에 합류할 예정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해외팀과의 교류가 상당히 어려워 아쉬웠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진 현지점에 국제적인 팀들과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총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며 훈련 경비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통해 향후 아시아게임에서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목표다.”라고 덧붙이며 다음 대회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개최국 중국, 과연 공정했나?

국내와 환경이 다른 해외 경기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개최국의 이점인, 현지 적응 문제 등 이번 대회 역시 어려움이 많았다. 첫 번째 문제는 경기장과 숙소와의 거리였다.

김진해 교수는 청두에서 “이동 거리가 길다 보니 휴식 시간이나 취침 시간이 부족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상황이 겹쳐 선수들의 심적 부담과 경기력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라며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이 겪은 어려움을 밝혔다.

이어 선수단 지원을 위해 파견된 보건진료소 물리치료실 안종민 주무관 역시 “선수촌에서 경기장까지의 이동거리가 너무 멀어 힘들었다. 빠르면 오전 9시에 경기가 시작되는데 3시간 전에 선수들이 몸을 풀러 일찍 나가야 했다. 워밍업을 도와준 뒤 선수촌에 남아있는 선수들 회복을 도와주러 다시 선수촌에 가느라 하루 6시간은 이동 시간에 쏟았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건우 학우도 “선수촌에서 경기장까지 버스를 탔다. 막히면 1시간 이상 걸려, 경기 준비를 위해 오전 5시 40분에 기상해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취침하며 회복했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행정 역시 문제가 있었다. 김진해 교수는 “자국에서 대회가 열린다면 어느 정도 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비교적 좋은 조건에서 대회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데, 실제

대회가 진행되는 경기장에서 지속적으로 적응 훈련을 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라고 문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세계대학경기대회뿐만 아니라 아시안게임도 시험 몇 달 전부터는 대회가 진행되는 경기장에서 훈련하지 못하게 돼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스키연맹의 통제 하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전 일정 기간 해당 경기장에서 훈련하지 않은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았다. 기후나 시차 및 음식과 같은 외부 조건들보다 이번 대회에선 이러한 문제들이 많은 작용을 했다.”라며 선수들의 컨디션 부분에서의 어려움 이외에도 경기장 적응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했다.

또한 김 교수는 종목 선발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나라마다 불리한 종목이 있고 유리한 종목이 있다. 우리 학교 불령부가 국제적으로 실력이 출중한 편인데 이번 하계대회의 경우, 중국이 불령 종목 자체를 제외했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불리한 종목을 빼버리는 경우가 중국이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크지만, 선수 개개인으로 봐도 정말 부당한 현상이다. 국제대회는 보통 2년이나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데 이번 하계 대회와 같이 해당 종목이 빠져버리면 선수는 큰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졸업해야 하는 실정이다.”라고 덧붙이며 아쉬움을 표했다.

더 큰 무대를 위한 발판

이번 대회 직후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개막한다. 코로나로 연기된 국제 대회들이 하나둘 다가오는 현지점, 이번 청두에서의 경험은 우리 선수들에게 자양분이 될 것이 분명하다. 김진해 교수는 다가오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우리 대학 선수들에게 “올여름이 유독 더웠는데 좋지 않은 상황에서 훈련을 소화한 선수들에게 모두 고생했고 잘 싸웠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곧바

로 아시안게임이 있으니 이번 대회를 발판 삼아 더 좋은 결과를 위해 다시 한번 열심히 달렸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응원의 말을 전했다.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현지 기준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진행된다. 5년의 긴 기다림 끝에 돌아온 대회인 만큼 우리나라 선수들과 한국체대 선수들이 후회 없는 활약하길 바란다.

청두 2021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입상자 명단

- 사격**
 - 10M 공기권총 개인(남) 임호진(43회졸) 2
 - 10M 공기권총 단체(남) 최보람(40회졸) 1, 임호진(43회졸) 1
 - 10M 공기소총 단체(여) 김지은(3) 1
 - 25M 권총 단체(여) 양지인(2) 2, 김민서(3) 2
 - 25M 속사권총 단체(남) 이건혁(42회졸) 3, 윤재연(43회졸) 3
 - 공기권총 단체(혼성) 양지인(2) 1
- 유도**
 - 48kg 오연주(40회졸) 3
 - 52kg 장세윤(3) 1
 - 단체전(여) 장세윤(3) 3, 오연주(40회졸) 3
- 우슈**
 - 남권 제가영(41회졸) 2
- 리커브 단체(남)** 김필중(43회졸) 1
- 컴파운드 단체(여)** 한승연(2) 1
- 컴파운드(혼성)** 박승현(4) 2
- 사브르(남)** 박상원(43회졸) 1
- 플러레(여)** 심소은(3) 1
- 사브르 단체(남)** 성현모(42회졸) 2, 박상원(43회졸) 2
- 마루운동** 류성현(3) 1
- 단체종합(남)** 김재호(3) 1, 류성현(3) 1, 간현배(4) 1
- 펜싱**
 - 사브르(남) 박상원(43회졸) 1
 - 플러레(여) 심소은(3) 1
 - 사브르 단체(남) 성현모(42회졸) 2, 박상원(43회졸) 2
- 태권도**
 - 54kg 남용혁(2) 1
 - 57kg 김유진(43회졸) 1
 - 80kg 서건우(2) 1
 - 남 단체 서건우(2) 1
 - 여 단체 임금별(41회졸) 3, 김유진(43회졸) 3
 - 품새 단체(남) 이재원(43회졸) 1
 - 품새 단체(여) 정하은(4) 1, 윤지혜(40회졸) 1
 - 품새(혼성) 손민선(3) 1
- 체조**
 - 마루운동 류성현(3) 1
 - 단체종합(남) 김재호(3) 1, 류성현(3) 1, 간현배(4) 1

총학생회 투표 결과 “학과방 활용” 68.5%

공간조정위원회 심의 후 결정

제45대 총학생회 ‘라운’에서 진행된 메타버스 도서관 4층 7개 공간 운영에 대한 학생 투표 결과, 학과방 활용이 확정됐다. 총학생회는 7월 7일부터 7월 23일까지 메타버스 도서관 4층에 위치하는 공간을 학과방으로 사용할지, 동아리방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재학생 투표를 진행했다. 1,059명의 학우가 주요조사에 참여했고, 학과방 활용이 68.5%로 채택됐다.

지난 3월 개관한 메타버스 도서관 4층에는 총학생회실, 학보사실, 방송국실, 스튜디오 그리고 6개의 동아리방과 회의실이 존재한다. 이 중 회의실은 학보사와 방송국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다만, 방송국실은 학보사와 총학생회에 비해 협소하다. 또한, 임기성 총학생회장(사회체육 19)은 개관 초기 학과방 신설 의사를 표

명했다.

이에 임 회장과 학보사 한지용 편집장(레저스포츠산업 19), 서승덕 방송국장(노인체육복지 20)은 여러 차례 회담을 가졌다. 임 회장은 방송국실을 넓은 회의실로 옮기고, 학과방 신설을 위해 기존 방송국실 공간 양도를 요청했다. 세 대표 그리고 구성원 간 협의결과, 회의실 공간을 방송국실로 이전하고, 학과방이 신설될 경우 기존 방송국 공간 역시 학보사와 방송국이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재학생 투표 결과가 학과방으로 나오며, 학보사와 방송국은 공동 공간을 양도했다. 한지용 편집장은 “원활한 인터뷰와 회의 및 기사 작성 업무를 위해 사무실과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지만, 학과방의 효용성이 더 크다고 생각했다.”라며 양도의 이유를 밝혔다.

이후 임 회장에게 진행 상황을 물었다. 임회장은 “현재 설문조사 결과를 공간조정위원회에 사안 접수 후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공간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학과방 또는 동아리방 배정이 확정되고 개강 후 빠른 시일 안에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회장에게 학과방을 추진하게 된 계기를 묻자 “동아리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학과에 소속되지 않은 학우는 없다.”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타 대학과 달리 학과방이 없었고 따로 학우들에게 주어진 휴게 공간이 부족했다. 매년 건의사항으로 복지 공간 증대 문제에 대해 언급되어서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라고 답했다.

학과방에 대한 학우들의 반응은 어떻게?

한예원 학우(노인체육복지 23)는 “현재 동아리방은 잘 사용하고 있어 학과방이 꼭 개설됐으면 좋겠다. 학과방이 없어서 평소에 같은 과 학우들과 함께 있을 공간이 마땅치 않았는데 이번에 활성화가 잘 된다면 좋을 거 같다.”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대로 동아리방 신설을 바랐던 학우 역시 존재한다. 남효현 학우(사회체육 23)는 “동아리 개수가 많다보니 동아리방이 없는 동아리도 있다”라며 “동아리방이 더 신설되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학과방이 아니라 기존대로 동아리방이 신설됐을 경우, 동아리방을 새롭게 갖게 되는 동아리가 나왔을 지도 모른다.

학과방 신설이 가져올 우려는 없을까? 그렇지 않다. 임 회장은 학과방이 생길 시 학생 복지 공간 증대의 목적이 아닌 학생회의 공

간이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각 학과 학생회장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대학의 학과는 10개지만 현재 7개의 학과방만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에 임 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항이라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다만, 종합체육관이 완공되면 공실 3개가 더 생기기 때문에 10개 학과가 모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끝으로 임기성 총학생회장은 “많은 인원이 설문 조사에 참여해줘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학과방이 학우분들의 편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라며 투표에 참여한 모든 학우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선우 수습기자 sunwoolee4747@naver.com

한여름의 졸업식, 우리도 졸업합니다!



2022 후기 졸업식에 참가한 학사 학위 대표 수여자들이 행사의 첫 순서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11일 한국체육대학교 필승관 5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수여식은 박사 10명, 석사 80명, 학사 99명으로 총 189명이 참석했다. 강당에는 문원재 총장을 비롯해 제4대 총장을 역임했던 정동구 박사, 최고경영자과정(WPTM) 이수석 명예회장 등 수많은 교내외 인사가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학위수여식은 국민의례로 시작해 학위증과 교원자격증을 수여했다. 이후 총장

식사를 거쳐 교가 제창과 기념 촬영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학위증 수여식에 참여한 이찬희 학우(태권도 18)는 대학교를 ‘인생에서 마지막 교육을 받는 곳’으로 느꼈다고 한다. 그렇기에 학부생으로 생활하며 공부와 ‘인간관계 형성’과 같은 일을 더 많이 해보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또 “입학할 때 느꼈던 설렘, 빠르게 흘러간 시간, 앞으로 나아가 할 사회에 대한 두려움 등 다양한 감정이 공존한다.”라고 말했다.

졸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후배들을 위한 한마디를 부탁하자 “대학에 다니는 동안 술도 많이 먹고 공부도 하며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정주아 학우(생활무용 19)도 학과를 대표하여 단상에서 학위증을 받았다. 그는 졸업 소감으로 “졸업은 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다. 학교생활을 하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학교에서 기억에 남는 일로는 교내에서 진행했던 실기 수업과 친구들과 어울렸던 순간들을 꼽았다. 또 앞으로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대학 생활의 기억을 살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문원재 총장의 축사는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건네는 안부 인사로 시작했다. 전날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카눈’ 때문에 걱정이 많았으나, 큰 피해가 없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학위를 ‘수년간 체육에 대한 변함없는 열정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한국체육대학교는 글로벌 스포츠 대학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체대 졸업생이라는 자부심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체육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스포츠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주체적인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원지호 기자 jiho305406@naver.com

2학기 승용차 요일제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승용차 요일제						※ 주말의 경우 요일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월	화	수	목	금	토·일	
1·6	2·7	3·8	4·9	5·0	X	
·차량번호의 끝번호 기준 해당 요일 학교 출입이 불가능하다.						

우리 학교는 오는 9월 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요청으로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한다. 승용차 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 요일에 맞는 차량번호만 출입할 수 있는 제도다.

예외도 있다. 철골 주차장이나 빙상장 지하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장애인, 임산부, 미취학 아동을 동승한 차량이나 장거리 통학, 경차 및 친환경 차량 또는 새벽 훈련 등으로 상시 조기 출근해야 하는 차량은 사전신청 시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8월 중 단속은 계도형식으로 진행한다. 따라서 구두경고 후 이동을 요청하며 요일제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그러나 9월 1일부터는 방호원 순찰 및 출입구 차량 번호인식기로 단속한다. 1차 적발 차량은 전면 스티커 부착, 2차 적발 시는 1개월 교내 출입 금지 조치한다. 3차 적발의 경우 해당 학기에 학교 정기관 등록 및 차량출입을 금지한다.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공지와 함께 차량 통행 유의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최근 대학 내 교통사고가 문제로 떠오르는데 요일제는 이를 원천

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 학내 차량 통행량을 줄이고 통행속도를 10km 이하로 공지에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차관리 담당자인 총무팀 조경연 주무관은 “승용차 요일제는 전체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학교에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차량 주차구역을 분산시키고 본관 주변 차량 통행량을 최소화하여 학생들이 위험하지 않게 돕기 위함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 주무관은 “지상 주차를 최소화해 공사로 인한 교통사고 등 위험 요소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재학생은 학생회를 통해 요일제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일제 인해 많은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가급적 면제신청 없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학교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정구역 주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기관 등록 차량은 철골주차장 2층과 빙상장 지하주차장, 두 곳을 이용할 수 있다.

박서진 부장기자 psj3158gh@naver.com

한국체대와 교육부의 만남, 늘봄학교 업무협약 진행

양질의 체육 교육을 위한 시너지 기대

6월 20일, 한국체육대학교가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협약식을 위해 한국체대를 직접 방문했다. 이번에 교육부와 맺은 업무협약은 학교 체육 활성화와 늘봄 학교 지원을 위한 협약이다. 업무협약식에 문원재 총장, 이주호 교육부 장관 외에도 우리 대학 교무처장, 기획처장 등이 참석했으며 교육부 나현주 방과후돌봄정책과장이 자리했다.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여 제공하고 하는 정책이다. 교육부는 돌봄 문제 해결과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늘봄학교를 통한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 대학은 24개 전문 실기 종목과 실용무용(K-POP) 등 늘봄학교 지원에 최적화돼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한국체대와 업무

협약을 맺게 된 것에 기쁘다며 “그간 우수한 체육 인재를 육성하고 세계적인 지도자를 양성해 온 체육 분야 최고의 전문기관인 한국체육대학교와의 협업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다.”라며 우리 대학과 업무협약을 맺게 된 이유를 밝혔다.

문원재 총장은 “방과 후에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그런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고 여러 스포츠를 접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 영재 발굴이나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해 국립대학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이 끝난 이후 베드민턴 교실을 참관하기 위해 승리관 베드민턴장으로 이동했다. 20일 열린 베드민턴 교실은 스포츠 청소년지도학과 학생들과 체육학과 베드민턴 학생이 지도 강사로 참여했다.

이 장관은 “학생들이 오후 시간에 베드민턴을 하며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좋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교육부가 (지급처립) 오후 시간에 운동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100%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베드민턴 교실 운영을 맡은 라경민 교수는 “(교육부 장관께서) 체육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로서는 매우 기쁘다.”라며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한국체대 학생들)도 지도자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라고 전했다.

강사로 참여한 김나연 학우(체육 22, 베드민턴)는 “저도 어린 나이부터 운동을 해 (아이들이) 귀엽게 보인다.”라며 가르침에 따라 아이들이 바로바로 습득하고 실력이 느는 게 보여보람차다고 전했다.

박서진 부장기자 psj3158gh@naver.com

한국체대-국회사무처 업무협약 체결,

‘운동으로 국민 생애주기별 건강 책임진다’

한국체육대학교(총장 문원재, 이하 한국체대)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7월 10일 국회 본관 다목적영상회의실에서 ‘올바른 운동으로 국민건강 100세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체대와 국회사무처는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대한민국 정책 연구 ▲학교 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 ▲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올바른 운동 방법 연구 ▲국회어린이집 유아체육 시범 사업 추진 ▲국회의원 스포츠 활동 및 국회사무처 스포츠 동호회 지원 등을 함께 협력할 계획이다.

한국체대 문원재 총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전 생애적인 운동 방법을 연구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자 초석을 다지는 뜻깊은 날이다.”고 말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유아체육부터 평생체육까지) 생애주기별 운동을 국회와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한국체대 관계자는 문원재 한국체대 총장 외에 김진호 대학원장, 정광채 산학협력본부장, 강광배 평생교육원장, 라경민 체육학과 교수, 구정록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다. 또한 국회사무처에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외에 권영진 입법차장, 김원보 특별위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기획조정실장, 정환철 공보기획관, 전완희 문제위 입법심사관, 고병국 국회사무총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체육대학교

방학 중 본관 내진 보강 공사, 개강 후 3주간 비대면 수업 진행



본관은 현재 내진 보강공사를 진행중이다. 이번 공사는 10월 13일 완공 예정이다.

2학기 개강을 앞두고 공간조정과 안전한 본관을 위해 방학 동안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예상보다 늦어짐에 따라 개강 직후 3주간 비대면으로 강의가 운용될 예정이다.

1985년 8월 준공된 본관 건물은 내진 보강 공사가 되어 있지 않았고, 화재에 일정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 성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석면을 사용했다. 따라서 2022년 12월 14일부터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를 착공해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 중이다.

주요 구조부 34개(본관 행정실(17개), 연구실(13개), 강의실(4개)에 매입형 철골 프레임 을 보강한다. 그리고 석면 제거 공사, 주요 보직자실 또는 사무실의 재배치, 배관공사 등의 기계 공사를 함께 진행한다. 또 지상 1층과 2층에 있던 외부 캐노피를 재시공한다.

현재는 공사 기간 사용할 대체 사무공간을 학생회관에 만들어 이사를 완료했다. 그 후 석면을 제거하고 가설공사까지 완료한 상황이다. 지금은 내진보강 및 마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2년 12월 14일부터 착공 계속되고 있는 공사는 올해 10월 13일에 마칠 예정이다.

이후 네트워크 공사와 본관 복귀 이사로 10월 27일 전체 공사가 마무리된다.

내진 보강공사와 같은 굵직한 공사와 함께 다른 공사들도 함께 진행했다. 그러나 장마가 길어져 공사 기간이 지체됐고, 결국 2학기 개강 직후 3주간 비대면 강의 운영이 확정됐다.

이 소식을 속보로 전한 학보사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학생들은 대부분 환호를 보냈다. A 학우는 ‘방학이 3주 추가됐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해당 게시물을 공유했다. A 학우 외에도 ‘개강이 너무 빨라서 힘들었는데 실 틈이 생겨서 좋다.’ 등 좋은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학교 행정 처리에 문제의식을 느낀 학우도 있었다. B 학우는 “매번 반복되는 통보식 행정에 환멸을 느낀다”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공사 기간 설정을 제대로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사과조차 없는 점, 회생을 요구하는 것이 화가 난다”라며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말했다.

다수의 환호와 소수의 비판 속 2학기 개강을 맞이한 한국체대, 내달 11일부터 대면 강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박정윤 수습기자 junung88@naver.com

총학생회칙 개정 공포, 중앙감사위원회 설립 추진한다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지난 1월 30일, 2차 정기회의에서 투명한 학생회비 사용과 학생 자치 기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중앙감사위원회 설립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기구의 설립 이전에 부실한 총학생회칙(이하 회칙)의 교변화가 우선이라며 임기성 총학생회장(사회체육 19)은 총학생회칙 개정 TF팀(이하 TF팀) 창설안을 발표했다.

이후 중운위 운영진의 만장일치로 TF팀을 창설했고 지난 3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총학생회 지대웅 교육정책국장(사회체육 19)을 필두로 활동했다. 재정 관련 회칙을 위주로 하되, 수정이 필요한 이외의 것들도 살펴보며 2학기 개강 직전 공포를 목표로 삼았다. 한 학기가 지난 지금, TF팀의 결과물과 앞으로의 계획을 알아보기 위해 지대웅 국장을 만났다.

지 국장은 “TF팀이 개정하기 이전의 회칙은 타 학교에 비해 매우 부실했다. 양만 놓고 보더라도 30페이지가량 차이가 났으며, 특히 재정 활용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라며 TF팀 활동이 꼭 필요했음을 강조했다. 이에, 지대웅 국장은 “재정 활용과 관련해 단순히 학생회비라고 언급돼 있던 것을 자치회비, 기타 수입금, 각종 자제

수입금으로 세분화했으며 이외의 전반적인 회칙에도 변화를 줬다.”라고 덧붙였다.

학칙의 명확한 기준 부재와 부실한 양으로 활동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질문에 지대웅 국장은 “해당 시점에 꼭 필요한 과제였고 많이 힘들 것이라 예상했다. 물론 막대한 양의 업무가 주어졌지만, 팀원들이 곧장 해야 할 것들을 잘 해줘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정기 회의는 격주에 한 번이 원칙이지만 팀장 권한으로 긴급 소집해도 팀원들이 잘 따라줬다.”라며 활동 소감을 말했다.

TF팀은 개정된 회칙을 공표했으며 공식적인 활동은 지난 6월 19일 마무리했다. 이후 원래 목표대로 중앙감사위원회는 재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중앙감사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이 개시된다면 학생 자치 기구 및 총학생회를 대상으로 재정 관련한 부분을 감시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다만, 지 국장은 “자치 기구의 명확한 범위는 현재까지 논의된 바 없다”라고 전했다. 총학생회칙은 총학생회 운영과 관련된 회칙으로, 학칙과는 차이가 있다. 개정된 회칙은 총학생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총학생회칙 및 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전면 개정 공포(2023.06.22)” 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현석 기자 fcxn000@naver.com

사령

[부장기자 승진]

보도부장:

박서진 부장기자 (노인체육복지 21)

디자인부장:

박소영 부장기자 (사회체육 22)

대외사업부장:

송현일 부장기자 (레저스포츠산업 18)

[정기자 승진]

원지호 (노인체육복지 18),

강현석 (스포츠산업 21)

[수습기자]

백종훈 (사회체육 20), 송차호 (사회체육 20), 이세은 (노인체육복지 23)

[특임기자]

기민정 (레저스포츠산업 20),

김수민 (운동건강관리 20)

위와 같이 발령함 2023년 08월 21일

한국체육대학교 학보사

SBS발 체조부 강제 기부 논란 “대물림 반드시 끊어 내야”

지난 1일, ‘SBS’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체조부 강제 기부’ 논란이 학교를 발칵 뒤집었다. 본교 체조부가 일부 졸업생들에게 계약금 10%를 기부금 명목으로 10년 가까이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학교발전기금 계좌가 아닌 체조부 관계자 개인 계좌로 직접 돈을 받았던 것이다. 또한, 기금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학교는 즉각 조치에 나섰다. 2일 오전, 관련 부서인 교무처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나눴다. 관계자는 “현재 곧바로 내부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경과에 대해 묻자 “어제 보도가 됐고 오늘 막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전달할 내용이 없다. 조사 결과가 명확히 나와야 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관련 인물들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듣고 철저히 조사해 원칙에 맞게 절차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학우들은 대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A 학우는 “학교 망신이다.”라며 부끄럽다고 말했다. B 학우는 “강제로 금전을 요구했다면 이는 엄연한 범죄 행위다.”라며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 학우는 “기부는 자유 의지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강제성을 띤다면 명백한 ‘갈취’다.”라며 “후배들을 위한 기부인데 후배들은 이

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하면 이는 횡령이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익명을 요구한 체조부 D 학우는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여쭙봤으나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 옷을 샀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옷으로 쓰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황상 교수님이 사적으로 썼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대물림을 반드시 끊어내고 싶어 용기 내어 학보사에 제보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알아보고자 우리 대학 체육학과를 졸업한 동문을 만났다. 2010년대 재학했던 E 동문은 “실업팀과 계약한 졸업생들이 기부금을 냈다”라며 과거 기부 문화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돈으로 단체복을 맞추는 등 공동 기금으로 사용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E 동문은 “금액대가 이번 체조부 이수만큼 크지 않았고 졸업생들 역시 학교생활을 할 때, 먼저 실업팀에 진출한 선배들의 기부금으로 여러 혜택을 누려 크게 불만을 가지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전했다.

이후, 타 종목에도 강제 기부 문화가 존재하지는 확인하기 위해 체조부, 조교 자리가 공석인 A부, 연락이 닿지 않은 B부를 제외한 체육학과 21개 종목 모든 조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기자는 조교들에게 부마다 졸업생이 강제로 기부하는 문화가 지

금도 존재하는지 물었다. 조교들은 입을 모아 “현재 강제 기부 문화는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골프부 박세종 조교는 “골프부 선수들이 대회에서 상금을 받을 때마다 좋은 뜻으로 기부할 때가 있다. 다만, 학교 공식 발전 기금 계좌를 이용하고 있다”라며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타 체육학과 종목 조교들은 “졸업생이 후배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개인 계좌가 아닌 학교 발전기금 계좌를 통해 기부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강제성과 횡령 우려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발전기금을 통한 기부조차 없는 부도 10개 이상이었다.

8월 18일, SBS는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피해 선수들을 소환해 증언을 확보했으며, 배후자인 체조부 A 교수 소환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 역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한다고 말했다.

학보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체육계가 비좁아 괜히 증언했다가 ‘배신자’로 몰릴까 두렵다”라는 말과 함께 인터뷰를 거절당했다. 익명 제보 역시 받았으나 특별한 내용을 제보한 이는 드물었다.

한지용 편집장 football1229@naver.com

제적 당한 학생 다시 원점으로 ... 학칙에 어떤 내용이 있나

지난 7월 12일, 중앙일보에서 「취업하라더니 돌연 제적...한체대 역도특기생에 벌어진 일」이라는 단독기사가 났다. 주요 언론사에서 단독을 불린 우리 대학 기사인 만큼 해당 사건을 기자가 직접 취재했다.

해당 기사는 A, B 학우가 실업팀 소속으로 선수등록을 하는 바람에 졸업을 앞두고 제적 처리됐다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수업관리지침과 제적이 명시된 학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이었다.

사건에서 언급한 수업관리지침 내용에는 “졸업 예정 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조기 취업자 출석으로 인정한다.”라고 쓰여있다. 또한 “재학 졸업예정자(졸업 최종학기 해당자) 중 취업한 자로 출석 및 수업을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자이어야 한다.”라며 적용대상을 정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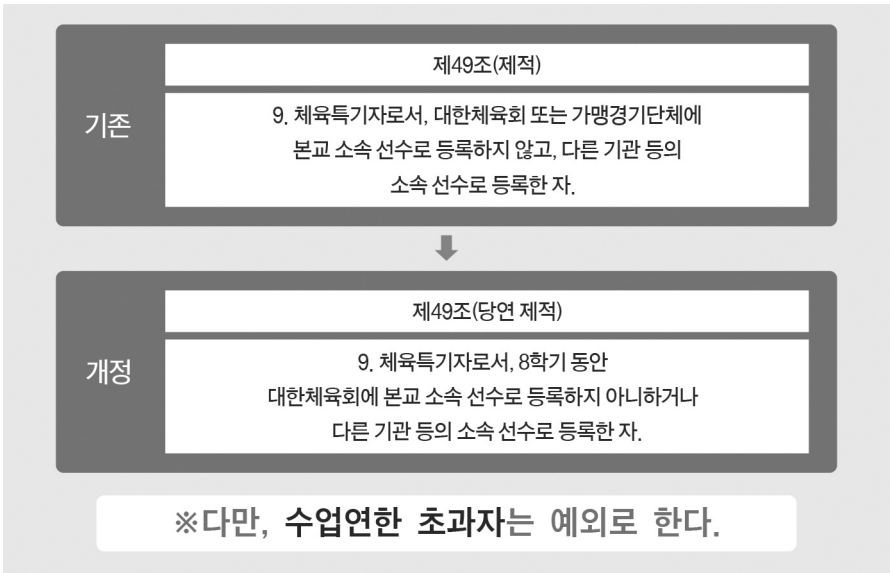
그렇다면 학칙은 제적에 대해 어떻게 서술하고 있을까? 학칙 ‘제49조(제적)’에 따르면 ‘체육특기자는 다른 기관 등 우리 대학이 아닌 소속으로 선수등록’을 할 경우 제적한다. 즉, 우리 대학 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경기인 등록 시 한국체육대학교로 소속을 기입해야 한다.

따라서 A, B 학우가 실업팀 소속으로 선수등록을 한 것은 조기 취업 제도로 정당하게 취업한 것이었다. 반면, 학교 측은 다른 기관 소속으로 선수등록 함에 따라 제적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학생들은 본안 소송과 함께 제적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며 학생들의 손을 들었다. 현재 학생 측 변호인은 이기선 변호사로 본안 사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역도특기생인 김모씨는 “8월 졸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교수님이 조기 취업이란 제도가 있다고 해서 하게 됐다”며 “학교에 내라는 서류를 냈고 팀에서는 선수 등록을 하라고 해서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본안 사건에 대해 학교 측 관계자는 “본 사건은 현재 재판 중인 건으로 자세한 별도의 의견을 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한국체육대학교 조기 취업자 수업관리지침」은 학칙 제65조에 따른 <성적평가> 중 <출석상황> 관련 예외적



제적관련 학칙이 8월 10일자로 변경됐다. 제적은 당연 제적으로 바뀌었고, 8학기동안 본교 소속으로 선수등록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유를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지침이지, 학칙 제49조 제9호에 반하여 체육특기자의 다른 기관으로 선수등록까지 허용해주는 지침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업학칙팀에 문의한 결과 제적 처분 집행이 정지됐기 때문에 해당 학생은 8월에 졸업 예정임을 확인했다. 실제로 A 학우는 졸업이 가능한 요건을 충족했고, 8월 졸업식을 통해 학사 학위를 인정받았다. 관계자는 “학교는 학생들의 졸업 요건이 충족되면 졸업시켜야 한다.”라며 “요건이 모두 충족됐기 때문에 졸업 확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소송 중이기 때문에 전체 판결에 따라 (학생들 상황은 이후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대학생에게 제적은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본 사건은 그에 비해 크게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체육특기생들은 제적과 관련한 사항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취재 결과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 C 학우는 “8월에 졸업하는 선수들이 거의 없다. 그래서 아마 조기 취업을 생각하는 학우들도 없을 거고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없을 거다. 마찬가지로 제적과 관련한 내용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D 학우는 “당연히 학교에 다니고 있으니 까 선수등록을 한국체대로 했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라고 밝혔다. 이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E 학우는 “체육학과 측에서 학생들이 입학할 때 한 번씩이라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라며 “이번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생기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8월 11일 이후 학칙 개정안이 공표됐다. ‘제49조(제적)’이 ‘제49조(당연 제적)’으로 바뀌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육특기자로서, 8학기 동안 대한체육회에 본교 소속 선수로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기관 등의 소속 선수로 등록한 자. 다만, 수업연한 초과자는 예외로 한다.’ 즉, 1학년때부터 4학년까지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학우는 반드시 우리 대학 소속으로 선수 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다른 소속으로 등록할 경우 곧바로 제적처리 된다. 다만, 8학기를 넘겨 9학기(5학년)를 다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소송 중인 사건은 학교와 학생의 일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해결책을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다.

박서진 부장기자 psj3158gh@naver.com

스포츠 시장에 뛰어든 OTT

SNL에 출연한 김덕배 ... “축구 어렵네”

“축구 어렵네.”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케빈 더 브라위너가 쿠광플레이의 오리지널 콘텐츠 SNL에 출연해 마지막 내뱉은 대사다. 이는 많은 축구팬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렇듯 OTT(Over The Top) 플랫폼의 스포츠 공략이 화제다. 해외 유명 구단을 국내에 초청해 경기를 치르고, 내수 시장 공략을 위해 야구 구단 및 협회와 협업한 플랫폼들이 있다. 왜 이들은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게 됐을까. 그리고 프로스포츠 구단과 협회는 이를 통해 무엇을 얻는가. ‘OTT 플랫폼과 프로스포츠 간 협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백종훈 수습기자 3605a@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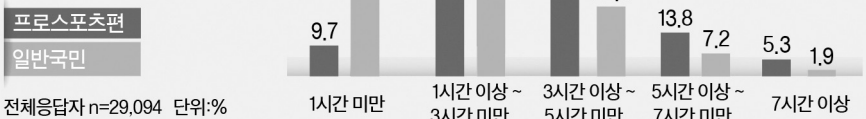
다시 불어오는 프로스포츠 부흥의 바람



쿠광플레이 시리즈 포스터다. 내한 경기를 치른 맨체스터 시티, AT 마드리드 선수단과 함께 K리그 선수들의 모습이 보인다. 출처:쿠광플레이

프로스포츠 팬들은 플랫폼의 콘크리트 지지층

2022 프로스포츠 관람객 성향 조사 보고서



한국 프로스포츠 협회가 발표한 ‘2022 프로스포츠 관람객 성향 조사 보고서’다. 일반 국민과 비교해 프로 스포츠 팬의 OTT 사용 시간이 ‘3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다

플랫폼은 콘텐츠를 생산, 유통하는 기업이다. 이들은 고정적으로 콘텐츠를 시청할 소비자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콘텐츠를 소비하는 국민은 콘텐츠에 따라 이탈이 잦다. 이러한 상황에서 콘크리트 지지층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스포츠 팬덤이다. 2022년 한국 프로스포츠협회가 밝힌 ‘프로스포츠 관람객 성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이 하루 평균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 시간은 ‘1시간 이상 ~ 3시간 미만’이 제일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프로스포츠 팬들은 ‘3시간 이상’ 이용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 국민은 ‘3시간 미만’ 이용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 조사로 프로스포츠 팬들은 다른 사람보다 디지털 콘텐츠를 더 많이 소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이를 유통하는 쿠광

플레이가 해외 축구 중계권을, 티빙과 웨이브가 국내 프로야구 중계권을 따내 고정 소비자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유지한 프로스포츠 팬들을 위해 플랫폼은 구단 및 연맹의 다큐멘타리를 제작한다. 프로스포츠 팬들이 원하는 온라인 콘텐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비시즌 선수 훈련’, ‘일상생활 관련 영상’이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 제작을 통해 경기 뒷이야기, 퇴근길 등의 일상생활을 담아낼 수 있다. 그렇기에 인기 스포츠인 야구와 축구 모두 경기가 없는 비시즌에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선 내부 다큐멘터리 제작이 가장 적합하다. 플랫폼들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를 유입시키고 다큐멘터리 등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해 본인들을 지지할 콘크리트 지지층을 마련한다.

KBO는 지난 2022년 디즈니플러스와 함께 <폴카운트>라는 다큐멘타리를 제작했다. <폴카운트>는 KBO 10개 구단이 제작에 참가한 다큐멘터리다. 구단당 1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했다. 코로나 19로 무관중 경기, 개막 연기, 리그 중단 등 풍파를 겪은 KBO는 야구 팬들의 감증을 해소하고자 다큐멘터리 제작을 결심했다. KBO는 지난 2021년 코로나 19로 인해 MLB 개막이 지연됐을 때 미국 방송사 ESPN에 중계권을 판매한 적 있다. 그때의 영향으로 해외 진출의 가능성을 알게 된 KBO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팬들을 위한 콘텐츠 제작을 준비했다.

KBO의 마케팅 자회사 KBOP의 콘텐츠 파트장인 하지현 파트장 (이하 ‘하 파트장’)은 “이전부터 다큐멘타리를 제작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구체화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디즈니플러스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 글로벌 OTT 플랫폼인 디즈니플러스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KBO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했

없는 것을 느꼈다.”라며 스포츠에 대해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쿠광플레이의 스포츠 시장 공략은 내한 행사로 그치지 않았다. 이번 여름, 유럽에 이적한 선수들의 경기도 볼 수 있게끔 중계권을 따냈다. 조규성 선수의 덴마크 리그, 이강인 선수의 프랑스 리그가 그 예시다. 해외 축구 뿐만 아니라 K리그 디지털 독점 중계권도 확보하며 저변을 넓히고 있다.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 역시 쿠광이 독점하는 모양새다. 쿠광플레이는 다가오는 2025년부터 AFC(아시아축구연맹) 주관 국가대표 및 클럽 경기의 중계권까지 확보했다. 또한, 쿠광플레이는 작년 카타르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과의 협업을 통해 <로드 투 카타르>

라는 다큐멘타리를 제작했다. 이 행보를 통해 쿠광플레이는 다른 OTT 플랫폼(이하 플랫폼)을 빠르게 뒤쫓는 중 이다. 쿠광플레이는 국내 플랫폼 중 시작은 제일 늦었으나 스포츠 콘텐츠에 정성을 쏟으며 성장하고 있다.

이에 질세라 다른 플랫폼도 스포츠와 연계하고 있다. 유명 플랫폼인 티빙과 왓차는 국내 인기 야구 구단인 LG트윈스, 한화 이글스와 협업을 통해 다큐멘타리를 제작했다. 디즈니플러스는 KBO(한국야구위원회)와 합작하며 10개 구단의 이야기를 담았다. 특히 디즈니 플러스는 국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KBO에 협업을 제안하는 등 국내 프로스포츠 시장의 진출을 노렸다.

콘텐츠 저변 확대를 위한 한국야구위원회의 노력



2022년 디즈니플러스와 KBO의 작품인 <폴카운트>다.

출처:디즈니플러스

다.”라며 국외 제작사인 디즈니플러스와의 협업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하 파트장은 플랫폼을 활용해 KBO가 얻은 이익은 어떤 것이 있느냐 질문에 “중계에선 볼 수 없는 모습,

라커룸 내의 모습 등을 보여주며 KBO 리그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물질적인 이익보다는 콘텐츠 저변 확대에 초점을 주었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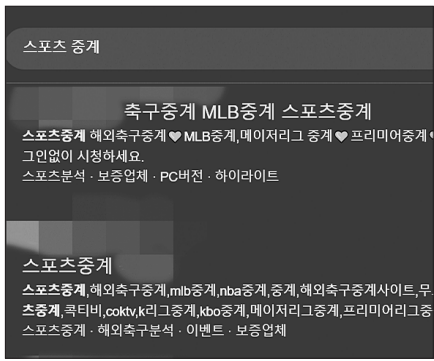
스포츠 콘텐츠 제작의 어려움과 우려사항

하 파트장은 “촬영 과정에서 제작사와 구단 사이의 입장 차이가 존재했다.”라며 제작과정의 어려움을 밝혔다. “제작사는 콘텐츠를 위해서 갈등 구조나 라커룸 이슈 등의 부분들이 노출되길 바랐으나 KBO나 구단 측은 팬들에게 보이기 곤란한 부분이라고 판단했다.”라며 골머리를 앓았다고 전했다.

플랫폼의 발전과 동시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KBO는 현재 웨이브와 티빙 등 플랫폼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중계로 펼쳐지는 경기를 플랫폼에서도 볼 수 있게 중계권을 판매한 것이다. 그러나 불법 스트리밍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 늘어나는 중이다. 하 파트장은 이러한 불법 스트리밍에 관해서 “KBO는 중계권을 판매했기 때문에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잡아낼 의무는 없다. 그러나 중계권을 구매한 권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도 많다. 포털 사이트에 스포츠 중계를 검색하면 불법 스포츠 중계 사

이트가 무려 5개 이상 나온다. 이렇게 쉬운 접근성 때문에 우리 학우들도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를 이용한다. A 학우는 “스포츠 시청만을 위해서 OTT 플랫폼을 구독하기엔 비용이 부담스럽다.”라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이용의 이유를 밝혔다.

플랫폼의 발전으로 스포츠를 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지금 가장 큰 우려는 보편적 시청권 침해다. 보편적 시청권이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 경기 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월드컵, 올림픽과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그 예시다. 만약 플랫폼이 월드컵이나 올림픽의 중계권을 독점해 유료 서비스로 제공한다면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한 것이다. A학우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 경기 대회가 유료로 전환된다면 “굳이 즐기 않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앞서 언급한 비용문제가 그 이유였다. 이에 반대로 B학우는 플랫폼을 통해서만 중계가 된다면 “비용과 관계없이 스포츠가 주는 큰 희열을



포털사이트에 ‘스포츠 중계’를 검색하면 아무런 제약 없이 불법 스포츠 중계를 접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없다.”라며 플랫폼을 통해 경기를 시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무려 70%가 넘는 사람들이 OTT 플랫폼을 이용한다. 만약 특정 플랫폼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큰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중계한다면 우리는 보편적 시청권을 잃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밝히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기자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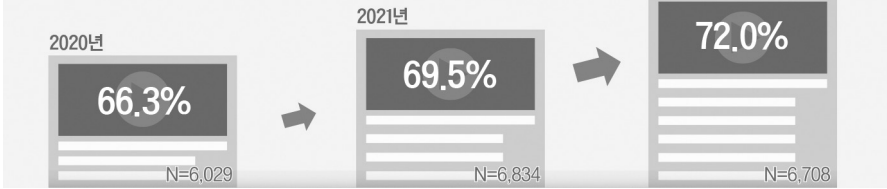
스포츠 콘텐츠의 전성기, 무한으로 즐기자

비옥한 토양과 단단한 뿌리가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좋은 열매는 우리가 즐기는 양질의 콘텐츠다. 프로스포츠 시장은 플랫폼이 사업을 시작할 토양이다. 단단한 뿌리는 OTT 플랫폼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한 프로스포츠 시장이지만 플랫폼을 통해 성장할 기반을 다졌다. 프로스포츠와 플랫폼의 공생으로 좋은 열매를 거둘 절호의 순간인 지금,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OTT 플랫폼의 발전이 프로스포츠에 끼친 영향

2022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출처: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한 ‘2022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다. 해가 지나며 OTT 사용자가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한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은 70%가 넘는다. 그리고 플랫폼을 통해 스포츠를 시청하는 국민이 22.9%에 달할 정도로 높다. 국민 중 5명 중 1명이 넘는 사람이 OTT를 통해 스포츠를 접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 학우들은 어떨까? 프로스포츠를 OTT로 접한 학우들에게 질문했다.

OTT 플랫폼을 통해 스포츠를 시청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박주원 학우(스포츠산업 22)는 “TV로 경기를 시청할 수 없을 때 경기를 보기 위해 플랫폼을 사용하게 됐다”라고 답하며 플랫폼을 통해 스포츠를 시청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그리고 “스포츠뿐 아니라 다른 콘텐츠들도 즐길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다.”

라며 플랫폼 이용 만족도를 밝혔다.

코로나 19로 인해 프로스포츠 시장은 축소됐고 플랫폼은 확장됐다. 응원문화가 형성된 우리나라 프로스포츠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그러나 지금은 플랫폼과 프로스포츠 시장이 서로 공생하며 성장하고 있다. 쿠광플레이는 K리그 중계권을 따낸 후 경기프리뷰, 하프타임쇼 등 많은 콘텐츠를 제작했다. 이를 통해 경기장을 찾는 팬들이 다시 늘었다. 웨이브는 KBO 5개 경기를 동시 시청할 수 있는 멀티채널 서비스, 중계와 함께 기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해외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 1위 플랫폼인 넷플릭스는 생중계 서비스를 하진 않지만, 스포츠 다큐멘타리를 제작하며 팬들을 열광케 한다. 플랫폼과 스포츠의 협업은 필수가 됐다.

교권, 권력이 아닌 권리다

지난 7월 18일,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전부터 교권의 추락은 주기적으로 언급됐다. 하지만 상급 교육 기관에서는 교육자를 지켜줄 대안을 찾지 않았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서울시 양천구와 부산에서도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다. 한국체육대학교 또한 교직에 진출하는 학우가 상당히 많다(체육학과 일부, 특수체육교육과 및 교육대학원 진학 등). 그리고 고등 교육 기관인 대학의 언론으로서, 또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대학생이자 피교육자로서 ‘가르칠 권리’라는 주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근 교권 침해 사례가 늘어나는 이유를 분석하고, 교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지 알아보고자 한다.

원지호 기자 jiho305406@naver.com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이들

지난 8월 5일, 장마가 끝나고 찾아온 무더운 날씨. 광화문에 전국 각지에서 3만 명이 넘는 교사가 자발적으로 모였다. 그들 중 7월 29일 2차 집회 당시 발언대에 올라가 목소리를 낸 경인교육대학교 학생회장 이도현 학우를 만나봤다. 그에게 집회에 참여한 이유를 묻자 “교육자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교육 현장의 현실이 안타까워 바꾸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좋은 교육자’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번 사태를 보며 심각성을 느낀 것이다. 앞으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물음에는 “교사 홀로 짊어지지 않는 교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답했다. ‘교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그들이 입을 모아 외치는 교권은 과연 무엇일까?

교권은 이번 서이초등학교 사건이 일어난 후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다. 교육학 용어



서이초등학교 정문 사진. 교문과는 상반된 분위기의 근조화환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원지호 기자

사전에 따르면, 교권은 ‘교직에 종사하는 교원의 권리’라고 한다. 넓은 의미로는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할 권리를 모두 포함한다고는 하나 보통은 ‘가르칠 권리’를 일컫는다.

우리 애한테 왜 그래요

서이초 이슈가 터진 초반에는 교사의 권리를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보다 학부모를 비판하는 여론이 더 커지는 추세다. 기사를 쓰는 시점(8월 10일)까지도 아직 제대로 된 경찰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 4일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해당 교사가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결국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교사에게 학부모의 갑질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로 힘들어하다 교직을 잠시 중단한 교사와 얘기를 나눠봤다. 그 또한 “사람과 현장 시스템이 젊은 교사를 죽였다.”라고 말했다. 실제 경험했던 악성 민원으로 ‘양말 신기’와 같이 가정교육에서 끝났어야 할 일들이 학교에

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를 예로 들었다. 관련 내용으로 해당 학생 학부모에게 연락했더니 “선생님은 미혼이라 부모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친절하다. 이런 걸로 나를 신경 쓰이게 하는 걸 보니 담임 자질이 부족한 것 같다.”라며 공격받았다고 한다. 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다음 날에는 학교에 학부모가 막무가내로 찾아오고, 무슨 행동을 할지 알 수 없어 긴장해야만 했다며 ‘보호받지 못하는 힘듦’을 토로했다.

피해 교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 중 한 가지로 오은영 박사의 ‘마음 읽기 교육법’ 얘기를 꺼냈다. 이 교육법은 아이가 문제 행동을 일으켰을 때 그 행동을 한 아이의 마음을 읽고 스스로 행동을 고치도록 한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사실 오 박사

는 전문적인 의사이며, ‘마음 읽기’를 거쳐 나오는 조언은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본인이 하는 가정교육의 불안함’ 때문에 교사가 나머지 부분을 오 박사의 조언과 교육법대로 채워주길 요구한다고 얘기했다.

학부모의 이런 ‘잘못된 마음 읽기’는 학생의 폭언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7월 25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에서 보도한 자료에는 한 학생이 교사에게 “나랏돈 X 먹고 뭐 하는 거냐.”라거나, “이딴 짓도 선생이냐.”라고 말했지만 해당 학부모는 상처가 많은 아이라며 감쌌다고 한다.

이렇듯 학생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도해야 하는 학부모도 교권을 무시하는 행동을 일삼았다는 걸 알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뭐길래

하지만 이 권리가 너무 커지며 권위로 변하자,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조례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늘어나고 있다. 교원이 학생들을 제재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는 교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교사들에게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으로 물었다.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었다.

먼저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교사의 말은 이렇다. 학생인권조례는 말 그대로 ‘학생의 인권을 위해’ 만들어진 조례다. 학생만 신경 쓰다 보니 같이 가야 할 교사의 인권은 미처 따라오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

는 교사들이 있다. 그들이 대답한 내용의 핵심은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충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즉 교권을 위해 학생 인권을 건드리는 건 옳지 못하다고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좋은 취지의 조례라고 말한다. 앞서도 말했듯이, 교권에 대한 명시가 없었고 인권을 보호받게 된 학생들이 학교에서 해야 하는 의무를 짓고 넘어가지 못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상대적으로 학생의 인권이 높아졌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두 집단에서 말하는 핵심은 거의 일치한다. 교사들은 대부분 “학생 인권을 올린 것은 잘한 것이며, 이제는 교사의 교육권을 옹호하고 지켜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 그 누구도 교사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속 학생들의 힘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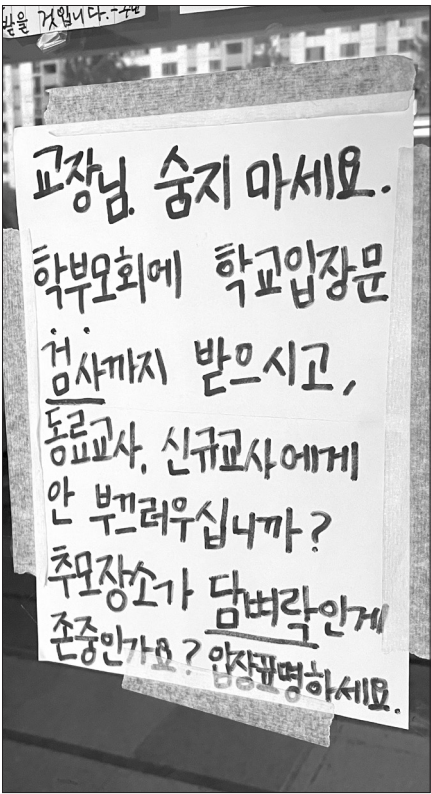
그런데도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

그렇다면 교사들은 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응하지 않고 묵묵히 버티고 있는 걸까. 서울교사노동조합의 수석 부위원장 장대진 교사는 “교권 침해를 당한다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한다. 하지만 많은 교사가 이를 망설이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꼽았다.

가장 큰 문제는 ‘아동학대 신고 우려’다. 장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면 해당 아동의 학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경우에 교사는 경찰서로 무조건 출석해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의2를 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례관리 및 조사를 위해 아동학대행위자를 출석·진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다. 무혐의 판결이 나더라도 긴 시간 동안 쌓이는 스트레스와 압박을 견디지 못해 교권보호위원회 신청을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또 위원회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교육활동 침해 판정이 나면 교내봉사부터 퇴학까지 7가지의 다양한 처벌이 따른다. 그러나 장 교사는 이런 조치를 학부모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으며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으려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 교사들은 언제 보복당할지 몰라 두려움에 떨어야 하고, 효과 또한 미비한 방법을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광화문 집회에서 만난 교사도 아동학대 처벌법을 비판했다. 그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애초에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라 정말 강력한 제재를 적용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동학대의 대상에 친



서이초등학교 정문에 교장을 비판하는 벽보가 붙어 있다. 사진:원지호 기자

권자(부모)와 더불어 교육 기관의 교육자까지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것이 교사들을 소극적으로 만들었다며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즉각적인 형사처벌이 아닌 면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집회에서도 3만 명이 넘는 교사가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하라!’라고 쓰여있는 피켓을 들고 다 같이 목소리를 냈다. 그들 사이에서 이 법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얼마나 큰 제약으로 다가오는지 알 수 있었다.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이 진행자의 선창에 맞춰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한지웅 편집장

초등교사와 임용 준비생들의 심경 변화

사실 이번 일로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같은 초등교사, 그리고 이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다. 학창 시절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교대에 진학하고, 이후 4년간 초등교사라는 꿈을 바라보며 공부했다. 그리고 이를 이뤄 마침내 원하는 교탁 앞에 섰다. 그런 이들에게 초임 교사의 사망은 어떻게 다가왔을까.

현직에 있는 비슷한 근무 경력의 초등교사 얘기를 들어봤다. 그는 먼저 누군가의 소중한 목숨이 도화선이 됐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학교라는 공간에서 일하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며 이미 학교 내에 비슷한 사례가 만연함을 나타냈다. ‘초등학교’라는 배경이 영향을 미쳤을지에

대한 질문에는 ‘성장 단계별 특수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내 학생 통제 수단의 부족, 어쩔 수 없는 학부모의 과보호 등을 이유로 들었다. 현재 초등학교는 ‘벌전’과 같은 제도가 부족하고 ‘훈계’에 그칠 수밖에 없기에 학생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또 대다수 초등학생은 학부모가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이곤 한다. 이런 특성상 본인의 아이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다는 학부모들이 생긴다. 그들이 하는 무리한 요청과 지나친 교육활동 개입은 교사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배제된 행동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어야 할 점을 물어보자 가장 먼저 법적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

다.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도하는 부분에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및 상급 교육 기관(학교, 교육지원청 등)의 협조도 부탁했다.

초등 임용 준비생에게도 심경이 어떤지 물어봤다. 그 또한 이전에 응답했던 초등교사와 같은 생각이었다. 이런 큰 사건이 터져야만 움직이는 정부와 교육청에 좋지 못한 감정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교사는 짊어진 책임은 막중하나 그에 따라오는 권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기에 책임을 뒷받침하고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전 초등교사의 응답과 맥락이 일치하는 대답이다.

기자생각

교사가 가르치는 걸 두려워하는 현실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교권이라는 건 앞서 말했듯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도 포함한다. 물론 예전에는 학생들의 인권이 일정 수준까지 보장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의 입장만 생각한다면 균형의 추는 다시 반대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집회에서 만났던 경인교육대학교 학생회장 이도현 학우가 “교권과 학생 인권이 서로 밀고 당기는 양상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학생 인권이 많은 정책을 통해서 신장했듯, 교권 또한 변

화할 필요가 있다. 교권은 학생보다 위에 설 수 있는 권력이 아닌, ‘학생이 잘되길 바라는 교사를 지켜줄 수 있는 권리’다.

지난 7월 28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저 연차 초등교사 간의 간담회에서 교사들이 부탁했던 말이 있다. 훈육과 학대의 기준선을 확실히 만들어달라는 말이었다. 어느 정도까지의 교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또 어디서부터가 교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확실한 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대학생 최강자들

2021 청두 하계 세계대학경

지난여름, 2021 청두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은 종합 3위를 차지하며 괄목할 만한 성적의 메달을 차지하며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선보였다. 자랑스러운 성과를 거두고 돌아온 우리 대학 학우들을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체육학과 21학번 사격부 김지은, 10m 공기소총 여자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Q. 운동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언제 처음 사격을 시작하셨나요?

A.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제를 통해 사격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당시 2주에 한 번씩 사격장에서 총을 쏠 수 있었어요. 제가 워낙 운동을 좋아하기도 했고 사격이 평소 쉽게 접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 더욱 매력을 느껴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격은 크게 소총, 권총, 클레이로 나뉩니다.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는 소총만 있어서 자연스럽게 소총 종목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Q. 경기체고 시절 전국체육대회 여자 고등부에서 우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억이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A.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는 메달을 결정짓는 결선 때마다 많이 긴장하는 편이었습니다. 본선 통과하고 8인이 치르는 결선만 치르면 배변



김지은 학우(우측)가 박다혜 동문(좌측, 청주시청), 박예빈 선수(가운데, 우리은행)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긴장을 많이 했죠. 그래서 메달을 거의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때, 본선에서 8위를 기록해 겨우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때 ‘어차피 결선 들어가면 잘 못하니까 편하게 쏘고 나오자’란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죠. 그런데 마음을 편하게 먹어서 그런지 개인 1등을 기록해 금메달을

Q. 워낙 실력이 출중하시다 보니 여러 대학, 실업팀 등에서 제의가 왔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체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A. 제가 고3 때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시합이 3개 정도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바로 실업팀을 가는 것보다 선수 생활을 오래 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대학에 와서 4년이라는 시간을 벌여놓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처럼 대학 생활도 경험해 보고 싶기도 했고요. 또한, 실업팀에 가기 전에 정신력과 기술을 조금 탄탄하게 만들고 싶어서 한국체대로 입학하게 됐습니다.

Q. 대학생이 된 후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까요?

A. 대학생이 된 후 국제시합을 여러 번 출

전했는데, 이번 6월 독일에서 펼쳐진 사격 주니어 월드컵에 참가해 공기총 개인전 3등이라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제 첫 국제무대 입상이라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이번 청두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메달이라 더욱 감회가 색다른 것 같아요!

A.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사격은 중국이나 인도 등 인구수가 많은 나라가 굉장히 잘하는 편입니다. 운이 좋게도 그날 상태 선수들이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함께 출전한 언니들과 함께 마지막 발까지 모두 10.5를 사격하고 나오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금메달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Q. 선수로서 U대회는 김지은 학우에게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요?

A. 코로나 때문에 U대회가 계속 미뤄지면서 3학년이 돼서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출전했습니다. 같이 출전한 언니들과 함께 대한민국 첫 금메달을 획득하여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나아가 제 자신감을 채워주고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 대회로 기억할 것 같습니다.

Q. 선수 생활을 하면서 슬럼프나 위기의 순간은 없었나요?

A. 가끔 지친 상태에서 운동하다 보면 기록으로 여실히 드러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만큼 간절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슬럼프나 위기가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면 조금해하기보다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훈련하다 보면 다시 기량이 올라올 것을 믿기에, 약간의 휴식을 취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편입니다.

Q. 김지은 선수의 다음 행보가 궁금합니다. 또 어떤 멋진 순간을 꿈꾸고 계신가요?

A. 남은 시즌을 잘 마무리하면서 올해 마지막에 있을 국제 대회에 출전해 제 커리어를 하나씩 쌓아가며 지금보다 더 성장한 선수가 되어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어 아시아게임, 세계선수권대회 등 메이저 대회에 출전해 입상하고 싶은 마음도 큼니다. 그리고 모든 운동선수가 그렇듯, 올림픽에 출전해 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제 꿈입니다.

한지용 편집장 football1229@naver.com



차지했습니다. 당시 코치님이랑 포옹하며 행복한 울음을 터트렸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체육학과 22학번 태권도부 남용혁, 태권도 남자 -54kg급 동메달리스트

Q. 태권도는 언제 처음 접했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시점은 언제인가요?

A. 태권도를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접하고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어린 나이와 제 운동신경을 보시고, 지도해 주시던 코치님께서 추천해 주셨어요. 주변 선수들에 비해 운동을 일찍 시작한 편인데, 어느 종목처럼 구력이 중요하듯 태권도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학교에서 같이 운동하는 선수들도 어느 정도 구력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배울 점도 많고 좋은 분위기에서 다 같이 성장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Q. 평소 크고 작은 부상들이 선수 생활에 걸림돌이 됐던 적은 없나요?

A. 중학교 시절 적지 않은 부상이 있었습니다. 운동선수라면 부상으로 인한 슬럼프가 가장 치명적이라 생각합니다. 얼른 나으려는 생각만으로 부상 시기를 현명하게 넘겨왔고, 운이 좋게도 해당 시기 이후 지금까지도 부상은 딱히 없었습니다.

Q. 한국체대가 태권도 종목에서 총 8개의 메달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에 일조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나라와 학교를 대표해서 출전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선발전 이후로 꾸준히 운동했고 종강 이후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일정이나 부상 등 대회



남용혁 학우(좌측)가 경기 중 발차기를 시도하고 있다.

준비에 있어 딱히 걸림돌은 없었고 후회 없이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합니다.

Q. 세계대학경기대회는 첫 출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부분이나 새로 깨달은 점이 있나요?

A. 중학교 시절의 경험 이후로 국제대회는 처음이고 세계대학경기대회도 첫 출전이었습니다. 큰 무대인지라 부담도 되고 긴장을 많이 했지만 차분하게 경기력으로 소화해 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와는 다른 환경이었지만, 그로 인한 컨디션 난조나 예민했던 부분은 없었습니다. 또한 국제대회인 만큼 다양한 국가의 선수들을 보며, 저의 부족

함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성장할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하며 긍정적인 기운을 많이 받았던 대회였습니다. 긴장을 많이 한 대회인 만큼, 다음 대회는 조금 더 편하게 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웃음)

Q. 이번 대회 이후로 올해 참가 예정인 대회가 있거나 앞으로 더 많은 무대에 서게 되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각오나 다짐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다가오는 9월 국방부장관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와 10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청두에서 귀국 후 바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두 대회를 잘

치르고 11월 우수선수 선발 태권도 대회에 출전한 후,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올해 최종 목표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이 배운 만큼 올해 남은 세 개의 대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선수, 무엇보다 겸손한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청두 대회 직후, 바로 훈련에 돌입하신 것에 피로감은 없나요? 휴가를 받았다면 어떤 계획을 세웠을 것 같나요?

A. 휴식 기간 없이 귀국 후 곧바로 훈련을 했다면 무리가 있었겠지만, 저의 종목의 경우 경기가 첫날에 진행됐습니다. 그렇기에 긴장은 많이 됐지만 일정을 빨리 마무리하고 남은 기간 청두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Q. 훈련이 없는 날, 혹은 휴가를 받으므로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산책, 음악, 여행, 사교활동 등)

A. 누구에게나 그렇듯 휴가는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선수마다 방법은 다르겠지만, 저는 주로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헬스장에서 운동하며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Q. 선수 생활을 하다 보면 경기력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로 슬럼프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한 과정이나 일화를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A. 말씀드렸듯 부상을 겪어도 슬럼프에 빠지기보다 회복에만 집중합니다. 부정적이거나 어떠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렇기에 메달을 따지 못하거나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엔 빠르게 인정하고 다음 시합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운동선수로서 체계 특출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예민하지 않은 성격과 끈기가 가장 큰 무기라 생각합니다.

Q. 10년 뒤 자신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A. 힘들어도 꾸준히 달려온 지금의 저와 10년 뒤 저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태권도 선수로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인생 2막을 걷게 돼도 분명 잘할 거라 믿습니다.

강현석 기자 fcnx000@naver.com



제31회 중국 청두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파견 국가대표 선수 선발대회 상장을 든 남용혁 학우.

를 소개합니다!

기대회 메달리스트 인터뷰

을 보여주었다. 우리 한국체대 학생들은 어김없이 월월 날았다. 전 세계의 우수한 대학생들 사이에서 무려 28
만나보았다. 특히, 27개 중 18개의 메달을 휩쓴 태권도, 양궁, 그리고 사격 종목에서 활약한 한국체대 학우 4

체육학과 22학번 양궁부 한승연, 양궁 컴파운드 여자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Q. 먼저, 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 양궁 컴파운드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소감과 당시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큰 국제 대회 경험에 적어 긴장을 좀 했어요. 이걸 이겨내고 금메달을 획득해 더욱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처음 경기장에 들어갈 때는 긴장이 됐지만 몇 번 활을 쏘고 상대가 어느 정도 쏘는지 파악이 끝난 후에는 긴장이 풀리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때부터는 ‘내 것만 잘하자’ 하는 생각으로 임하여 경기를 잘 이어갈 수 있었어요.

Q. 초등학교 때부터 양궁을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린 승연 선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양궁의 매력은 무엇이었나요? 양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처음에는 맛있는 간식을 많이 주는 애기를 들고 학교 양궁부에 들어가게 됐어요(웃음). 그렇게 초등학교 3학년 때 양궁을 배우기 시작했고, (활을) 쏘다 보니 과녁 정중앙에 화살이 명중했을 때 이 명중함에 매

력을 느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양궁 국가대표인 장해진 선수나 기보배 선수를 보며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 전문 선수를 목표로 훈련했어요.

Q. 전통적인 리커브가 아닌 컴파운드를 주 종목으로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컴파운드만이 가진 특별한 묘미가 있는 걸까요?

A. 저는 원래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리커브를 주 종목으로 운동했습니다. 그런데 고2 때 갑작스러운 슬럼프가 왔고, 당시 코치님께 추천을 받아 컴파운드로 전향하게 됐어요. **(Q. 슬럼프도 전향과 함께 사라졌나요?)** 네, 전향하면서 없어진 것 같아요. 컴파운드의 묘미라고 한다면 컴파운드는 리커브와 달리 활 조준기에 확대경이 달려있어 더 정확히 조준해 높은 점수를 낼 수 있다는 점이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Q. 갑작스럽게 전향하면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A. 아무래도 컴파운드는 리커브보다 장력이 세서 어깨에 무리가 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보강 훈련과 재활을 같이 하면서 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컴파운드는 리커브보다 순간적인 힘을 많이 발휘해야 해서 리커브처럼 속사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컴파운드를 연습할 때는 천천히, 차분하게 마음을 먹고 조준하는 것에 신경 써야 한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컴파운드 활은 캠이 있어 활을 일정 수준 당겼을 때 힘이 덜 들고 더 쉽게 버틸 수 있으며, 2개의 조준기가 부착되어 있어 최대한 당겼을 때 조준 유지가 더 쉽다.**

****컴파운드 활은 끝에 ‘캠(cam)’이라는 도르래가 달려 있어 처음에 당길 때의 힘이 리커브 보우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후 힘이 줄어든다.**

Q. 현재 여자 양궁 컴파운드 대표팀 선수를 보니 모두 실업팀 소속으로 선수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체대 재학 중에는 실업팀 활동이 어려운데, 한국체대에 진학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 실업팀에 대한 아쉬움은 없나요?

A. ‘한국체육대학교’라는 이름만 들어도 느껴지듯이 ‘대한민국 체육계의 기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한국체대를 선택하고 진학했습니다. 실업팀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은 있지만 그렇다고 제 선택에 대해 크게 후회하지는 않아요. 실업팀에서는 월급을 받는 선수로서 운동을 하는 거라 더욱 열심히 하며 성적도 잘 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질 수 있



한승연 학우(우측)와 동기인 이연주 학우(좌측, 체육 22 양궁)가 함께 찍은 네컷 사진 중 일부이다. 한승연 학우는 사진에 취미가 있어 외출하면 사진을 찍으러 다닌다고 한다.

잖아요. 하지만 대학교는 비교적 그런 점이 적다 보니 크게 부담 갖지 않고 하고 싶은 양궁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Q. 컴파운드는 아직 인지도도 높지 않고, 올림픽 종목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대부분 운동선수가 더 큰 무대로 나아가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A. 이전보다는 컴파운드 종목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곧 올림픽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전에 많은 경험을 쌓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어요. 그리고 컴파운드 종목에서도 계속 좋은 성적을 낸다면 인지도도 곧 리커브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Q. 평소 취미는 무엇인가요?

A. 노래 듣거나 미니언저 만들기 같은 아가자기한 거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토이스토리’를 정말 좋아해서 기숙사에 피규어 같은 것도 모아서 장식해둡니다. 또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해서 요즘 유행하는 ‘네컷 사진’도 친구들과 만나 놀러 가게 되면 무조건 한 장씩 찍습니다. 학교에서 외출을 받게 되면 사진 찍으러 다니곤 해요.

Q.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저는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을 가져 양궁을 시작한 이상 컴파운드 선수로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고 싶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 부장기자 qkrthdud0330@naver.com

태권도학과 20학번 정하은, 태권도 여자 품새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Q. 비교적 늦은 나이에 선수로 데뷔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A. 태권도를 처음 접한 건 8살 때입니다. 부모님이 동생과 함께 놀다 오라며 도장에 보내셨어요. 적성에 잘 맞아서 꾸준히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사범님이 ‘한국체육대학교총장배 전국 태권도대회’에 나가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죠. 경험 삼아 참가했는데 운 좋게 2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해볼까?’ 생각했어요. 같은 해 개최한 ‘대한태권도협회장기 전국품새선수권대회’에 출전했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곧이어 열린 ‘세계품새선수권대회’ 파견 국가대표선발전’도 우승을 차지하며 본격적인 선수 생활을 시작했어요.

Q. 선수 생활 첫해에 바로 국가대표가 된 거네요.

A. 운이 좋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만큼, 욕심내지 않으려 했어요. 그러다 보니 긴장하지 않고 실력을 발휘한 것 같네요.

Q. 첫 출전인 청두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 여자 품새 단체전 금메달을 거머쥘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훈련에 임했나요?

A. 코로나19로 대회를 연기함에 따라 참가 나이 제한에 변화가 있었어요. 원래는 대학(원)생만 나갈 수 있는데, 2년을 늘려서 다수 졸업생이 출사표를 던진 거죠.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선발전 준비에 임했



정하은 학우(가운데)가 윤지혜 동문(우측, 포천시청), 송경선 선수(좌측, 용인대학교)와 함께 여자 단체전 종목 경기를 치르고 있다.

어요. 끝내 국가대표 자격을 따냈고, 청두로 향했습니다. 막상 대회 자체는 편했어요. 아무래도 종목 특성상 국내 선수들의 수준이 높아서 해외 무대가 더 부담이 없죠. 그리고 단체전 동료 중 같은 대회에 3번째 참가하는 윤지혜 선배님이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마음가짐이나 기술적 부분에 관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태권도학과 16학번 윤지혜 동문은 ‘2017 타이베이 하계유니버시아드(現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 이미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Q. 모든 게 처음이라 기억에 남는 장면도 많았을 것 같아요.

A. 결승전에서 중국을 상대했는데 아무래도 개최국이다 보니 응원이 엄청났어요. 자국민이 관중석의 4분의 3을 채웠습니다. 단순히 수만 많은 게 아니라 엄청 열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들과 “우리 할 것만 하자.”라고 외치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죠. 언제 그렇게 타국 관중에 둘러싸여서 무대를 뽐내겠어요. 폐막 후 한국에서 ‘우석대학교총장기 전국태권도대회’에 출전했는데 훨씬 마음이 편했습니다.

선수 생활에 있어 큰 경험이 된 것 같아요.

Q. 바쁜 선수 생활 중에도 활발히 SNS 계정을 운영하는 이유가 있나요?

A.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순간을 간직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한 장씩 사진을 올리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Q. 인스타그램 계정을 살펴보니 ‘아디다스 컴뱃 스포츠 앰배서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시작했나요?

A. 작년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에서 공인 품새와 자유 품새 모두 1등을 차지했어요. 오픈 대회에서 한 선수가 두 종목 동시 석권한 경우는 세계 최초로 하더라고요. 그게 눈에 띄었는지 아디다스 측에서 홍보대사로 활동하지 않겠냐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스스로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Q. 오픈 대회에서 우승한 만큼, 태권도 선수로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했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나요?

A. 메달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를테면 ‘노력’과 같은 것들이죠. 스스로 한계를 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부터 자유 품새와 공인 품새를 모두 잘한 건 아니거든요. 공인 품새는 대학에 와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애매한 선수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하면서도 묵묵히 훈련했죠. 힘든 시간을 이겨내니 이렇게 됐네요. 이 글을 보는 후배들도 뭐든 자신 있게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잘할 거예요.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Q. 벌써 마지막 질문이네요. 23살의 정하은 선수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중인가요?

A. 언젠가 은퇴하겠지만 두렵지 않아요. 선수 생활이 끝나더라도 ‘태권도 인생’마저 막을 내리는 건 아니거든요. 훗날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 미 잘하는 사람을 가르치기 보단 태권도 변방국에 가서 대표팀을 이끌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선 많은 경험을 쌓아야겠죠. 제가 메달에 집착하지 않는 이유는 이기든 지든 거기서 배울 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를 잊지 않고 잘 새겨서 뛰어난 인재를 길러내는 데 밀가루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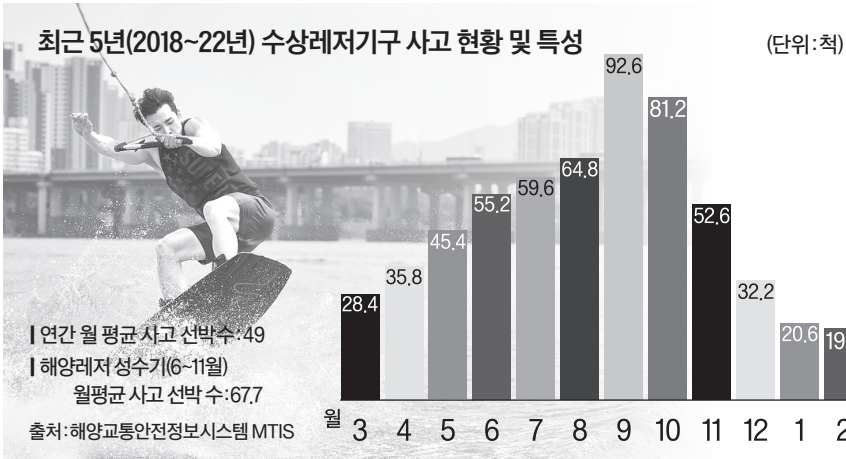
송현일 부장기자
clilck21@naver.com

빠지, 제대로 알고 즐겼는가?

‘빠지’의 뜻을 아는가? 해당 명칭은 바지선(화물 운반 선박)을 뜻하는 영어단어 ‘Barge’에서 유래했다. 국내에서는 보통 다양한 물놀이 기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통용한다. 기사는 이번 여름 더위를 피하고자 해당 시설을 방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을 검색하던 중, 불법 운영 업체에 관해 보도한 기사를 발견했다. 내용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한국체대 학우들도 빠지를 많이 찾는 만큼 이 사실을 널리 알리고자 취재에 나섰다.

이선우 수습기자 sunwoolee4747@naver.com

안전사고,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다



이번 여름 빠지를 다녀온 이들에게 안전과 관련한 만족도를 물었다. 남효현 학우(사회체육 23)는 올해 5월, 한국체육대학교 졸업생 동아리 선배가 운영하는 빠지를 방문했다. 남 학우는 “수상기구를 타는 동안 안전수칙을 잘 설명해주고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해줬다.”라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다친 곳은 없었는지 묻자 “너무열심히 놀아서 코피가 났다. 그 때 직원분께서 바로 휴지를 주며 지혈을 해주고 휴식을 취하라고 조언해줬다.”라고 말했다. 임장빈 학우(사회체육 23)는 이번 방학에 학교동아리 엠티로 빠지를 방문했다. 작년 여름에도 같은 곳에 놀러 갔었는데 청결 상태가 많이 나빠져 있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다만, 수상레저를 즐기는 동안 위험 여부는 없었는지 묻자

“많은 안전요원이 수시로 돌아다니며 구명조끼와 안전모를 착용하라고 지시했다. 구명조끼의 버클까지 꼼꼼히 확인하며 안전에 매우 신경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며 재방문 의사를 표했다. 다녀왔던 빠지에 모두가 만족한 건 아니다. 최윤석 학생(단국대 20)은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빠지를 방문했다. 인터넷 검색으로 가장 후기가 좋은 곳을 선택해서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상 여부를 묻자 “빠지 자유 시설에서 놀던 중 부표 사이에 발이 빠졌다. 이로 인해 무릎에서 피가 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큰 부상을 입었다. 이때 빠지 측에서 아무 대처도 하지 않았다. 안전요원이 있긴 했지만 특별한 제재를 안 했고, 밴드 같은 구급품도 없었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지자체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을까?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와 가평소방서 합동 단속원이 가평군 내 수상레저 업체의 휘발유 보관함을 점검하고 있다. 출처: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가평 지자체는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 애쓴다고 말했다. 가평군청 관계자는 “매년 연초 수상레저 안전관리 계획 수립 후 성수기 이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안전수칙을 담은 교재는 물론 안전 안내판까지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성수기(7~8월)에는 경기도·해양경찰·가평경찰서와 함께 수상레저 안전관리 합동 단속을 진행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계도와 단속을 통해 관리중이며 별도로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사업을 운영하여 안전감시원을 채용, 사업장 안전수칙 등을 지도·관리 중이라고 답했다.

진정한 안전을 위해서라면

모든 안전사고가 100% 업장 탓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교수는 “빠지에 방문하는 친구들이 어리다 보니 자극적인 놀이기구를 즐기 위해 위험하게 탑승하거나 ‘더 무섭게 태워주세요.’ ‘한뼘 죽여주세요.’ 등의 발언을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가평 빠지 직원인 C군에 의하면 안전 수칙을 여러 번 설명해줘도 듣지 않는 손님들이 많다고 전했다.

다.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 이른바 ‘안전불감증’. 사고는 안전불감증에서 시작한다. 이 교수는 안전사고와 인명피해를 막으려면 안전 수칙을 설명하는 강사의 말을 잘 들어야 함은 당연하고 소비자가 먼저 자신이 방문하는 곳이 합법적인 곳인지 아닌지에 대해 잘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업장의 위법 운영

수상레저 시설마다 다르지만, 여름에 특히 사람이 몰리는 계절 장사인 만큼 위험요소도 많고 부상 가능성도 높다. 실제 사례로 이슈가 됐던 ‘경남 합천군 합천호’에 위치한 빠지에서 일어난 익사 사고는 충격을 자아낸다. 야유회로 빠지를 방문한 헬스장 대표가 구명 조끼를 입지 않은 트레이너를 떨어트린 것이다. 물에 빠진 트레이너는 결국 나오지 못하고 익사했다. 가해자의 100% 과실이지만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면, 빠지 직원이 제재했다면 어땠을까.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듯 우리의 안전은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 만약 방문한 곳이 불법 빠지라면 안전을 보장받기는 더욱 어렵다. 하지만 우리의 욕안으로 불법 영업장인지 아닌지 구별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빠지의 불법 영업 기준은 어떤 것이 있을까?

불법 영업의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 수상레저 시설이 모여 있는 지자체 가평 군청에게 직접 문의했다. 군청 관계자는 수상레저 시설 업장이 합법적으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 37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의 별표8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에 맞는 적법한 영업구역, 시설기준, 인력기준, 사업용 수상레저기구, 인명구조장비, 비상구조선 등을 갖춰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해당 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업장에 현장 방문하여 사업장 내 인명구조 장비가 적절하게 갖춰졌는지, 시설기준이 적합한지 등을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없다면 등록증을 발급해준다고 말했다.

수상레저 운영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법과 규정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안전과 환경 보호 등을 위해 특정 규제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소비자 보호이다. 가격 표시, 환불 정책, 이용약관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어겼을 시 명확한 불법이며 위법행위다. 이러한 경우, 운영자는 법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석 없이 보트에 탈 수 없으나 수상레저 업체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사상자가 발생했다. 출처: JTBC 뉴스룸

적인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영업은 존재한다.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업장의 부실한 관리와 안전에 안일한 점을 문제로 꼽을 수 있다. 수상레저 빠지는 수상 동력기구를 이용하는 ‘유선 사업’이다. 빠지를 영업하기 위해서 영업허가증, 보험증, 운항허가증 등 많은 자격증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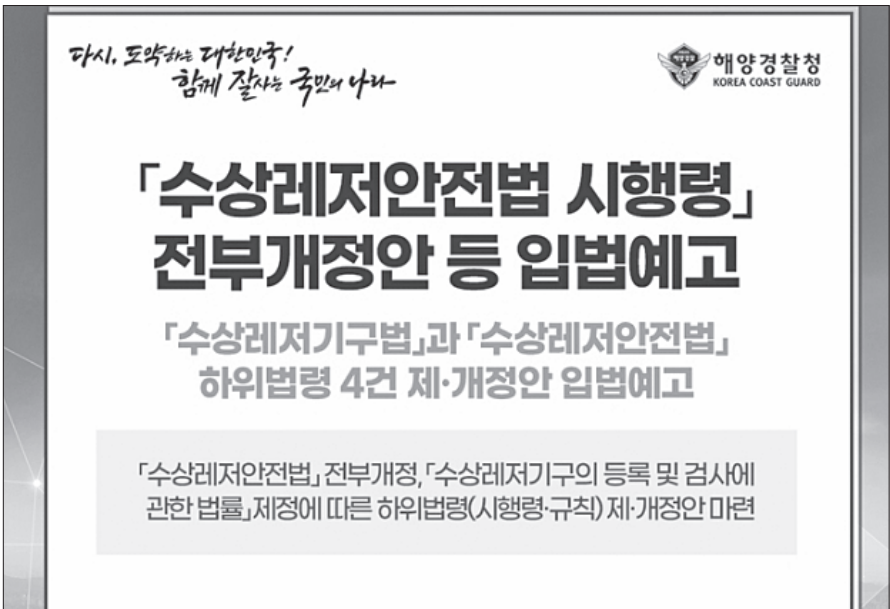
하지만 이러한 자격증 없이 무단 영업을 하는 빠지들도 존재한다. 실제 사례로 A 업체는 2018년 12월 사업등록증을 위조하고 대형 레저시설을 짓는 공사를 시작했다. A 업체는 공사가 끝나가는 2019년 4월이 돼서 야 하천점용 허가를 신청한다. 심지어 담당 공무원을 협박하고 브로커와 지역 언론인을 동원했다. 그 결과 9,026㎡ 규모에 달하는 면적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불법행위는 시정되지 않은 채 대규모 공공수역 하천 점용 허가도 내려졌다. A 업체는 지자체의 간섭 없이 무단 벌목, 불법 하천, 무허가 식당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이어가면서 현지 환경을 훼손했다. 추후

협약이 드러나 이에 대한 처벌은 받았지만, A 업체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빈다.

불법적인 빠지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 36년간 수상레저사업에 종사한 이병유 특임교수(체육학과 펜싱부 졸업, 왕터리조트 원장)에게 자문을 구했다. 이 교수는 “강의 면적은 한정적인데 점점 더 많은 빠지가 들어오려 한다. 영업장의 간격은 넓지 않고 다른 영업장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이 붙는다. 즉, 다른 영업장보다 손님을 많이 끌기 위해 더 자극적인 액티비티를 제공하기 위한 경쟁이 강 위에서 펼쳐진다는 뜻이다.

이어 이 교수는 “보트 운행 제한 수가 범으로 정해져 있지만 더 빠른 회전율을 위해 이를 어기고 더 많은 보트를 운행하고 면허증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 보트 운전을 시키기도 한다. 고객들의 나이대가 보통 20대이기 때문에 더 자극적이고 짜릿한 놀이기구를 찾는다.”라고 전했다. 안전 규정을 어기고 아슬아슬하게 운행되는 놀이기구들은 경쟁이 빚은 참사라고 볼 수 있다.

미비한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



지난해 10월, 수상레저안전법과 관련한 4개의 법령 재개정이 예고됐다.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7월 법령이 모두 개정됐다. 그러나 여전히 관련 법령은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출처: 해양경찰청

에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기재되어있다.

하지만 23년 7월 6일에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8조에는 ‘무면허 조종이 허용되는 경우’가 기재돼 있다. 이처럼 현재의 법령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내용이 여럿 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진로 고민 상담소 : 스포츠 마케팅

“뚝뚝, 계신가요?”, “어서오세요. 한국체육대학보 진로 고민 상담소입니다.” 지난 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한국체육대학보 진로 고민 상담소가 문을 활짝 열었다. 학우들이 진로 고민을 모두 해결할 때까지 진로 고민 상담소는 상시 영업할 예정이다. 2학기 첫 번째 상담사는 스포츠 마케팅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이순호(‘인천 유나이티드 축구단’ 마케팅 팀장, 최진국(광고대행사 ‘디사이드엔컴’ 마케팅 차장) 동문이다. 스포츠 마케터의 삶을 사는 이번 상담사들은 입을 모아 ‘자신만의 스토리’를 이야기했다. 대외 활동 경력? 아니면 진로를 정하게 된 계기? 우리의 멘토들이 말한 ‘나의 이야기’는 뭘 의미하는 걸까?

박소영 부장기자 qkrthdud0330@naver.com

Q. 스포츠 구단 마케팅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주요 능력은 무엇인가요?

A. ‘기본’적인 것에 충실해야 할 것 같아요. 외국어의 경우 원어민처럼 하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쓰고, 듣는 등 업무 수행을 위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문서 작업 능력도 필요해요. 대학생들은 ‘한컴오피스 한글’을 많이 쓰는데, 사기업은 호환이 되는 ‘마이크로 소프트 워드’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해요. 더불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등도 많이 사용하니 길러야 할 능력 중 하나예요. 또 전화 예절과 잘 듣고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의사소통 능력도 중요합니다. 코로나 이후 대면하는 게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많다는데 실무로 넘어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임 활동을 해보거나 자기만의 화법을 만드는 등 계속 도전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Q. 스포츠 구단 마케팅과 타 회사 마케팅 업무에 차이가 있나요? ‘스포츠 구단’만의 특별한 업무 특성이 궁금합니다.

A. 제가 스포츠 구단에서 일한 지 6, 7개월 차인데 구단 스포츠 일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에요. 하나의 경기를 만들어내기까지 기승전결의 과정이 있어요. 관객들이 보는 경기는 ‘결’에 해당하는 데 그를 위한 준비 과정인 ‘기승전’이 다른 브랜드 직장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다양하고 신경 써야 할 분야가 되게 많아요. 경기 전, 중 이벤트는 물론이고 안전 문제나 불법 촬영 문제, 주차 문제, VIP 초청 관리, 온/오프라인 홍보, 푸드트럭 운영 등 한 경기를 위해 챙겨야 할 것들이 30~40개 정도 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업무 중 범위로는 최고로 넓은 것 같아요.

Q. 스포츠 구단이 원하는 인재상(구단에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A. 직접 (인천 유나이티드에) 다니면서 보니 직원분들이 ‘자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많은 분이 인천 출신이고, 또 인천에 거주하면서 ‘인천 시민화’ 된 분이 많고 그만큼 축구단 애정도 되게 높아요. 구단 직원은 구단이나 연고 도시에 대한 애사심이 있고 축구도 좋아하며 밝은 사람과 일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지금까지 다양한 마케팅 업계에서 일해보고 느낀 바로 마케팅 산업에서는 조금 힘들더라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불임성이나 활발한 면들이 스포츠계에서 조금 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런 건 모두 기본적인 역량이다 되고 난 다음에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대학생 때 그러한 역량을 많이 배워오면 좋을 거예요.

Q. 스포츠 구단 지원 시 서류 전형 합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특별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팀장님이 기억하시는 흥미로웠던 서류 사례들도 궁금합니다.

A. 일단 1차적으로 글을 딱 봤을 때 느껴지는 좋은 느낌들이 분명히 있어요. 무난한 글이 아닌 궁금한 느낌들이 있는데, 주로 자신이 취업을 준비하며 경험했던 알바나 자격증 같은 걸 지원 서류에 잘 녹여서 오면 분명히 그런 느낌이 와요. ‘이 직업을 하고 싶어서 지원했구나’와 ‘그냥 썼구나’로 구별이 돼요. 기억에 남는 지원자는 자신이 취업을 준비하며 경기장 탐방을 했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온 지원자가 있었어요. 이런 스토리가 자신만의 색깔이 되고,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높이 평가되죠. 조금이라도 노력한 모습을 보는 거니까요.



Q. 스포츠 구단 면접관이 면접에서 관심 있게 평가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진짜 이 업종에서 일하고 싶어서 지원했는지’부터 보는 것 같아요. 여러 곳에 지원하면서 어설픔게 복사 + 붙여넣기 하다 보면 기본적인 띄어쓰기 같은 실수를 남기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고 같은 내용이라도 정말 읽고 싶게 만든 글이 있어요. ‘가독성’이라고 하는데, 띄어쓰기나 행 나누기, 볼드체, 밑줄 처리 같은 기술로 자신의 글을 읽고 싶게 만들어야 해요. 잘 쓴 글을 많이 보고 내 걸로 만드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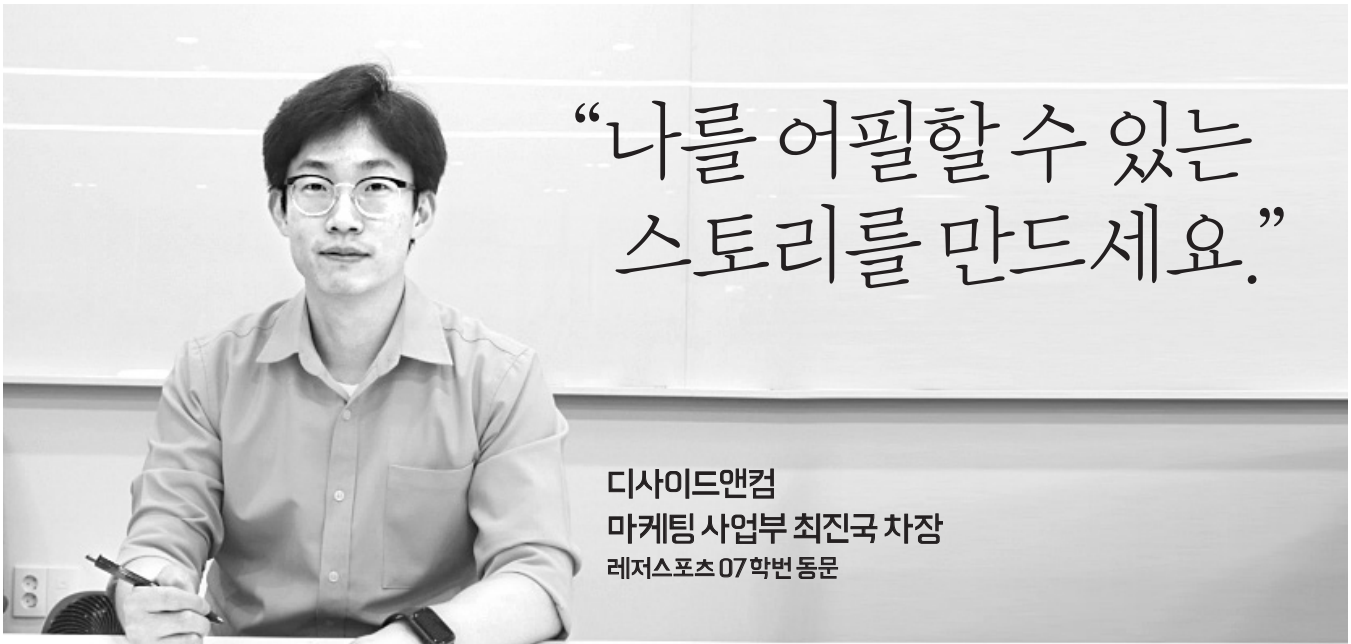
Q. 스포츠 구단 관계자 분들이 생각하는 ‘체대생 지원자’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A. 저는 체대생이라는 점을 숨기려고 하

진 않아요. 오히려 ‘체육대학을 나왔고 여러 활동을 하며 취업을 준비한 사람입니다.’라는 걸 많이 보여주려 했어요. 첫 직장에서도 그 걸 좋게 봐주셨고요. ‘체대생’이라는 점을 ‘장점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언어로 예를 들면 체육학과와 타 학과 두 지원자가 있는데 둘이 비슷한 언어 능력을 갖췄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체육 전공자가 더 큰 노력을 했다고 느껴져 체육학과 지원자에게 더 좋은 점수를 줄 것 같아요. 또 체육 전공자가 체육 쪽에 지원했다면 스포츠에 대해 기본적으로 많이 안다는 거니 그런 부분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구체적인 스포츠 마케팅 취업 준비 과정이 궁금합니다. 필수적으로 지니고 있어야 하는 자격증이나 스펙, 활동 경력 등 무엇이 있을까요?(학생 질문)

A. 정답은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제가 했던 걸 참고용으로 얘기해 드리자면, 저는 일단 자격증은 없었어요. 스포츠 마케터가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업종이 아니다 보니 그 대신 인턴십이나 알바, 특강, 교내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한 걸 이력서에 녹여서 썼고, 그런 점이 ‘이 친구가 진짜 스포츠 마케팅을 하려고 4년을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먹혔던 것 같아요. 제가 4학년 2학기 때 면접을 보러 갔던 첫 회사의 대표가 제게 “우리 회사에 많은 사람이 이력서를 썼다. 근데 내가 당신을 먼저 보고 싶었다. 당신이 쓴 이력서가 굉장히 특이했고 굉장히 열심히 산 것 같아 궁금했다. 그래서 당신을 먼저 제일 먼저 보자고 했다.”라고 말하셨어요. 그 회사에 결국은 떨어졌지만 좋은 얘기를 듣고 ‘이게 되는구나’ 싶어서 제 방식을 계속 발전시키기 시작했죠.



Q. 직장에서 담당하시는 업무를 소개해주세요.

A. 저는 ‘에이전시 마케터(다양한 업체의 광고를 대행함.)’이자 ‘AE(광고대행사와 광고주 사이의 연락 및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대행사의 책임자)’로서 광고주 케어나 관리, 광고 운영 등 전반적인 광고 업무에 관여하고 있고, 저희 회사가 스타트업이어서 회사 대부분의 업무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Q. 프로모션, 디지털 마케팅 등 대행사에서 여러 홍보 업무를 하는 것 같아요. 해당 업무들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A. 우선적으로는 비딩(Bidding, 마케팅 시장에서는 온라인상에 광고하기 위하여 어떤 키워드를 어떤 위치에 노출해서 진행

할지를 입찰하는 것)을 합니다. 후에 하고 싶은 내용을 가지고 인하우스 마케터(한 브랜드에 소속된 기업 내 마케팅 담당자)에게 제안서를 돌리죠. 다음으로 광고주에게 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하고, 괜찮다고 판단하면 광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Q. 스포츠 마케터로서의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A. 11년도에 마라톤 알바를 하면서 42.195km를 완주하는 저희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을 보면서 되게 멋있고, ‘나도 이런 그들에 있어서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크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스포츠 마케터라는 진로를 정하게 됐고, 이를 위해 스포츠 토론 동아리, 일반 마케팅 공부, 인턴십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했어요. 그중에 이제 ‘SMR’이라는 스포츠 마케팅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스포츠 산업에 대한 이해도는 물론이고 제안서, 기획서 등 문서 작성과 이해, PT 디자인 공부 등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웠어요.

Q. 광고대행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주요 능력은 무엇인가요? 한국체대 학생들이 이런 능력을 키우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차장님은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기본적으로 문서 작성이나 디자인 편집 능력 등이 있고, ‘현장 대응 능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방문한 사람들이 조금 더 즐거움을 더 느끼게 만들 수 있는

대응 능력이 스포츠 마케터로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스포츠를 볼 때 팬의 입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무자의 입장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지난 쿠팡플레이 친선 경기 때처럼 갑자기 비가 오면 보통 ‘불편하다.’, ‘언제 시작하지?’ 등 일반적인 팬의 입장에서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스포츠 마케터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좀 대처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연습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실무에 나가서 빛을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Q. 마케터의 급여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제가 스포츠 마케팅 회사에 있을 때는 월급 120만 원 받았어요. 그게 10여 년 전이긴 하지만 사실 지금도 최저임금과 비슷하거나 조금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회사를 제외하고 광고, 마케팅 쪽이 대부분 그렇기는 해요. 업무의 숙련도와 현장감이 매우 중요하고 광고주 케어 등의 역할은 경험으로 쌓이는 것이다 보니 사회 초년생 때는 조금 힘들지만 연차가 쌓이면서 좋아지는 것 같아요.

Q. 대행사나 마케팅 등 해당 업종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시나요?

A. 다른 스펙을 제외하면 첫 번째로 인성이 좋고 그다음에 일머리가 있는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을 것 같아요. 면접에서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아봤는지를 봐요. ‘우리 회사에 이만큼 관심이 있네’를 느끼면 더 호감이 생기고 더 물어보고 싶어지는 거죠. 더 호감이 생기고 더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러고 거기서 조금 나아가 ‘만약에 내가 담당자라면 이런 걸 해보고 싶다.’, ‘내가

여기서 일할 기회가 있다면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우니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등의 모습을 보여주면 이익을 내야 하는 기업으로서 그 지원자에게 더 좋은 점수를 줄 것 같아요.

Q. 이런 기업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A. 기업 사이트나 면접 후기를 볼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보거나 혹은 학과 선배들, 학과 사무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찾아가는 것도 대학생 이기에 해볼 수 있죠. ‘나는 한국체대 몇 학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왔다.’ 말하면서 티타임이라도 한 번 가지면 어떤 후배가 궁금해서 왔다는데 기특한 마음도 들고 그렇죠.

Q. 구체적인 스포츠 마케팅 취업 준비 과정이 궁금합니다. 필수적으로 지니고 있어야 하는 자격증이나 스펙, 활동 경력 등 무엇이 있을까요?(학생 질문)

A. 먼저 내가 뭘 하고 싶은지가 명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진로를 결정했다 후회하고 시간을 낭비할 수 있으니 내가 뭘 잘하고 좋아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정확한 목표가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준비하면 좋겠어요. 만약에 스포츠 마케터가 되고 싶다면 일반 마케팅 커뮤니티에 일반 마케팅을 배워보고 그다음에 스포츠 마케팅 대외 활동을 통해 스포츠 마케팅 전반과 일반 마케팅과의 차이를 이해한 뒤 서포터즈나 인턴십 등의 체험 활동을 하면서 마케팅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련 사람들도 알게 되고 정보 교류도 하면서 꿈을 이루는 게 좋겠죠.

아시안게임, 전설들이 전하는 이야기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5년 만에 돌아오는 아시안게임, 전국 곳곳에서 기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체대만큼 아시안게임을 기다리는 곳은 없다. 그리고 한국체대만큼 아시안게임에서 빛났던 곳도 없다. 수많은 아시안게임 메달이 이를 증명한다. 이처럼 우리 대학의 위상을 드높였던 한국체대 동문들은 수없이 많다. 그 중에는 후학 양성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대학 교수들도 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 선수 16명(교내 종목 최다)을 배출한 카누 정종환 교수와 체육학과, 경기지도학과를 아우르는 스포츠과학대학장 정광채 교수의 아시안게임 ‘蜚’과 응원 메시지를 담아보았다.

한지용 편집장 football1229@naver.com 박서진 부장기자 psj3158gh@naver.com

‘1990 베이징 아시안게임 은메달, 동메달리스트’ 카누 정종환 교수

Q. 먼저 학우 여러분께 카누 종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카누는 배에서 노를 저어 앞으로 나아가는 수상 스포츠 종목입니다. 카누 종목은 K-1, K-2, K-4 등으로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K-’ 뒤에 붙는 숫자는 탑승 인원을 뜻하죠. 저는 제11회 1990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남자카약 K-4, 즉 4인 단체전 500m, 1,000m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카누는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록경기보다는 순위 경기 종목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Q. 대표팀에 선발 됐을 때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A. 고3 시절, 1989년 5월에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발탁됐습니다. 카누 국가대표 선발은 1인승(K-1) 종목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개인 기량이 있어야 선발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기존 국가대표 선수들은 대학교 선배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수가 들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부담감 또한 고등부 경기보다 몇 배 더 큰 위압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은 결승전에 9명까지 올라가서 6위안에 들어가 최종 선발될 수 있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2위를 하게 됐습니다. 제 경기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기뻐했습니다.

Q. 본격적인 아시안게임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A. 국가대표 선발 이후 이듬해 우리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세내기답게 들뜬 마음으로 아시안게임을 준비했죠. 그러나 국가대

표팀의 훈련 강도가 높다 보니 하루하루 녹초가 되지 않는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시안게임에 출전한다는 자부심이 컸기 때문에 즐겁게 훈련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Q. 아시안게임 본선 무대에서 배에 탔을 때 심장이 터질 듯 뛰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솔직히 떨리는 심장이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할 정도로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전날 밤, 팀원들의 목표가 같고 간절했기에 “우리는 잘할 수 있어”라는 말로 파이팅을 넣어주며 잠을 청했던 것 같습니다. 경기 당일에도 출발 신호가 울리기 전까지는 긴장되고 동료들과 실수 없이 잘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잘할 수 있다’고 마음속으로 외치며 스타트 라인에 들어섰죠. 다행히 출발 신호가 울리면서 그런 걱정과 긴장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그저 ‘1등 해야지!’란 생각으로 앞 선수의 패들링을 열심히 맞추면서 힘차게 밀어주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Q. 교수님이 메달리스트가 되셨던 1990 베이징 아시안게임은 교수님께 어떤 의미였나요?

A.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시상대 제일 높은

“
한국체대 카누 16인!
서로 배려하고 믿는다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예요



곳에 올라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을 꿈꿀 것입니다. 그 무대가 아시아 최고의 선수들이 겨루는 아시안게임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는 출전하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의 공통된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출전한 500m는 사실 중국과 일본이 너무 강세여서 금메달을 기대하긴 어려워 가벼운 마음으로 뒀습니다. 동메달을 차지한 게 당연하다고 여겼죠. 다만, 금메달 기대 종목이었던 1,000m는 달랐습니다. 아쉽게도 결과는 중국 다음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2위였죠. 2초 차이로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시상대에 오른다는 기쁨은 매우 컸습니다. 1위를 못했다는 실망감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팀워크가 좋았던 우리는 동료들과 서로 축하해 주며 그간의 노력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아마 그때가 선수 생활 중에서 최고의 희열과 감동을 만끽했던 순간이지 않았나 싶네요(웃음).

Q. 카누부의 경기를 지켜볼 한국체대 학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A.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카누 종목은 3개의 세부 종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수에서 펼쳐지는 스프린트 경기, 급류에서 이루어지는 슬라럼 경기, 정수에서 여러 명이 탑승하여 팀워크로 대결하는 용선(드래곤보트) 경기로 분류됩니다. 우리 재학생들은 슬라럼 종

목에 백정현(4학년), 용선 종목에 차태희(4학년), 이현주(3학년), 이재용, 황민규(이하 2학년) 학생들로 총 5명이 참가합니다. 드래곤보트에 출전하는 학생들을 보면 팀워크가 펼쳐지는 경기라서 호흡이 잘 맞아야 하고 속도가 빠른 종목이라 관전하는 즐거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능력에 따라 포지션이 정해져 있다는 것도 관심 포인트입니다. 그중에서도 이현주 학생이 리드미컬하게 쳐주는 북소리가 주목할 경기 요소라 생각합니다. 패들러의 손동작을 조절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현주 학생을 주목하길 권해봅니다.

Q. 제자 사량이 절실히 느껴집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체대 출신 카누부 선수가 졸업생 포함 무려 16명에 달합니다. 가장 많은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를 배출하셨습니다. 아끼는 제자들에게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로서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아시안게임과 같은 국제무대가 주는 중압감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선수가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화할 때는 격려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서로 배려해 주는 행동을 해주길 바랍니다. 팀원들끼리는 항상 믿고 한마음을 갖고 경기에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한국체육대학교 카누부의 저력을 정현, 태희, 현주, 재용, 민규가 항저우에서 보여줄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졸업생들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모두 건강하게 부상 없이 메이저 대회를 즐기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1994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태권도 정광채 교수

Q. 교수님이 입학하셨을 당시, 한국체대의 위상은 어떠했나요?

A. 저는 91학번으로 입학했습니다. 당시 한국체대라는 이름이 갖는 무게감은 상당했습니다. 88올림픽 당시 한국체대 소속 선수가 정말 많은 금메달을 차지하기도 했고 각종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한국체대 선수가 메달을 많이 차지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올림픽 무대에서 한국체대가 다른 대학보다 월등히 많은 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여전히 한국체대가 태권도계에서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Q. 대학생 시절 체급을 변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체급 변경을 시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A. 기본적으로 태권도는 체급이 8개가 있는데, 국제대회 때는 메달 개수가 많다는 이유로 두 체급씩 묶어서 총 네 체급으로 줄입니다. 저는 처음에 -67kg(페더급)이었는데 대학교에 들어와서 키가 크고 체중이 증가했습니다. 자연스레 라이트급인 -74kg급까지 증량이 되었죠. 라이트급은 웰터급(-80kg)과 통합하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때는 80kg 선수들을 상대하게 됐습니다.

Q. 그렇다면, 사실상 교수님보다 한 체급 위인 선수들을 상대하는 건데 어려움이 따랐을 것 같습니다.

A. 대신 상대 선수들보다 가벼웠기 때문에 스피드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발차기를 극대화해 큰 사람을 제압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저는 앞발차기와 나래차기가 주특기였습니다. 상대가 저한테 가깝게 붙는 스타일이면 앞에 있는 발

인 원발(오른발잡이 기준)로 빠르게 위에서 내려찍는 앞발차기를 사용했습니다. 반대로 저와 가깝게 붙지 않고 멀리 떨어지는 전략을 쓰는 선수에게는 공중에서 양발을 사용해 쫓아가 타격을 할 수 있는 나래차기 역시 저의 주특기였습니다. 나래차기는 제가 상대 공격을 피하고 즉시 반격할 수 있는 기술이라서 공수 양면으로 유용하게 썼던 것 같습니다.

Q. 어떤 과정을 거쳐 아시안게임 대표 선수로 선발되었나요?

A. 말씀드렸다시피 국제대회는 두 체급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당시 라이트급과 웰터급 국가대표로 선발된 1진과 2진, 총선수 4명이 리그전을 치러서 1명을 뽑았죠. 웰터급 1진은 훗날 시드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경훈 선수였는데 제가 당시 컨디션이 최고조여서 선발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이어, 1994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서 태권도 -80kg급 금메달을 차지하셨습니다. 당시 스코어를 기억하시나요?

A. 워낙 오래전 일이라 스코어까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결승전은 그나마 기억나는데 이란 선수를 13대 2 혹은 13대 3으로 이겼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각 국가의 대표 선수들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당시 제 컨디션이 워낙 최절정이라 비교적 큰 점수 차로 이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웃음).

“
훈련을 실전처럼,
실전을 훈련처럼
자신의 기량을 맘껏 뽐내길
응원합니다



Q. 2000 시드니 올림픽부터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걸로 아는데 교수님이 전성기였을 90년대 올림픽에 태권도 종목이 없어서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A. 사실 그렇죠. 만약 그때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때 태권도 겨루기 종목이 있었다면, 메달을 노릴 만했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시대를 너무 잘못 타고나지 않았나 싶네요(웃음).

Q. 교수님의 제자 중 다가오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선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사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원래 작년에 열리는 대회잖아요? 만약 코로나로 연기되지 않았다면, 지난해 선발전에서 출전권을 획득한 한국체대 4학년 4명(장준, 권도윤, 박우혁(이하 남자), 김유진(여자))이 우리 대학 소속으로 뛰었을 겁니다. 다만, 1년이 미뤄지면서 재선발전이 치러졌습니다. 그중 장준, 박우혁, 김유진 선수는 재선발전에서 우승해 진출을 확정 지었는데 선수들이 졸업함에 따라 실업팀 소속으로 출전하게 돼서 아쉬운 마음이 큼니다. 그래도 재학생 중 태권도부 2학년 서건우 학생이 단체전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아직 어리지만, 고등학생 때 전관왕을 달성할 정도로 기량이 출중한 선수입니다. 좌우지간 재학생, 졸업생 모두 한국체대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출전에 좋은 성적을 거두길 기대합니다.

Q.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 모든 전문 체육선수를 총괄하시는 스포츠과학대학장으로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나서는 한국체육대학교 선수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평생사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얻을 것입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성실히 경기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대회인 만큼 평생 기억에 남는 자신만의 소중한 추억을 쌓고 오세요. 긴장은 나의 적입니다.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처럼’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자신의 기량을 맘껏 보여주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이외에도 많은 교수의 이야기를 담았으나 지면의 한계로 모두 담지 못한 것에 송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기자들의 출중한 디자인 실력이 가미된 멋진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모두 담았습니다. 두 분 이외에 김병식, 라경민, 백진국, 이영선, 박재명 다섯 교수님이 전하는 아시안게임의蜚, 한국체육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와 학보사 인스타그램(@knsu_new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여름 바쁜 와중에 시간 내어 학보 기자들과 즐겁게 인터뷰 해준 모든 교수님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AG 레전드 7인의 인터뷰 QR 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NSU의 여름안에서

밀려오는 과제와 시험을 끝내고 맞이한 여름방학. 각자의 방법으로 또는 목적대로 보내셨나요? 방학이 끝나고 다시 학기가 시작돼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한 인터뷰를 가져왔습니다. 아쉬움은 잊고 여름 방학의 아름다운 추억은 기억하기 위해 한국체대 학우의 가장 보람찬 방학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박정윤 수습기자 junung88@naver.com

여행으로 배우는 긍정학개론 - 사회체육 21 신은정

Q. 어디에서 누구와 여행 중인가요?

A. 서유럽을 여행하고 있고 지금은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와 막무가내로 “우리 나중에 유럽은 꼭 가자!”라고 말하며 여행을 계획했던 것이 지금이 적절한 시기로 판단되어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3학년 2학기를 앞두고 있어서 이때가 아니라면 취업 준비 때문에 바쁘고 시간 내기 어려운 것 같아서 방학 대부분을 서유럽에서 보내는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Q. 여행지에서 생긴 독특한 돌발 상황이 나 재미있었던 일화가 있나요?

A. 기차를 환승해서 이동해야 하는 계획이었는데, 기차가 연착되면서 환승을 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안내데스크에 영어로 대화를 시도해 보려 했지만, 이탈리아에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소통하기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고 현지인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다음에 오는 열차표를 예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돌발 상황을 통해 바디랭귀지와 짧은 영어로 현지인과 소통하며 감사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고 다음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여유를 갖고 그 지역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여행 계획이 100% 지켜지는 일정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돌발 상황과 예외의 순간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 불편하거나 두렵기보다 “오�히려 좋아~”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안 통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바디랭귀지로, 힘들고 지치는 순간도 즐기며 긍정적으로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는 힘을 배웠습니다.

Q. 여행은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A. 저는 여행이 본인을 제대로 알아가는 최고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소와 사람들을 마



유럽여행 중인 신은정 학우(사회체육 22).

주하게 되면 나도 몰랐던 나를 알게 됩니다.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삶의 방향성을 재설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에게 여행은 재충전의 시간과 즐거움도 주지만 배움의 큰 의미를 줍니다.

Q. 다음 방학에 여행을 계획하는 한국체대 학우들에게 여행을 독려하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취업을 위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공부하는 것도 대학생의 중요한 과제이지만, 여행을 통해 젊음을 누리고 새로움을 배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 또한 저번 학기에 아르바이트와 수업, 과제들로 꽤 채운 일상을 살았 습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던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통해 나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고 정말 좋아 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고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일단 비행기표를 예약해 보세요! 좋은 여행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행

같이 일하니까 더위가 알아버? 시즌 아르바이트 - 스포츠청소년지도 19 허민혁

Q. 간단한 자기소개와 방학 동안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시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19학번 허민혁입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교내 수영 동아리 푸르니 부원들과 함께 안전요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푸르니의 회장을 맡게 되면서 이번 시즌 아르바이트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푸르니는 지난 20년 동안 매해 여름수영장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방학을 푸르니 부원들과 거의 2달 동안 숙식하며 일하고 재미있는 추억을 쌓으면서 시즌 아르바이트의 전통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Q. 야외 수영장이다 보니 더위에 힘든 근무가 예상됩니다. 근무 일정과 강도는 어떤가요?

A. 수영장이 개장하는 9시부터 6시까지 총 9시간 중 하루에 인당 4시간을 실질적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야외 수영장이다 보니 휴게시간이 필수이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쉬거나 다른 잔업을 하며 근무합니다. 안전근무는 물놀이 안전사고를 위해 감독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과도한 체력 소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시즌 아르바이트의 좋은 점은 중간중간 수영장에 사람이 없거나 폐장 후에



근무 중인 허민혁 학우(좌측에서 두번째, 스포츠청소년지도 19).



시즌아르바이트 중 잠시 휴식을 취하는 푸르니 부원들.

부원끼리 들어가 수영하고 놀며 더위를 식히고 배달 음식을 함께 먹으며 부원끼리 재충전의 시간을 갖습니다.

Q. 시즌 아르바이트를 통해 배우게 된 점, 또는 아쉬운 점이 궁금합니다.

팀장의 자리를 맡게 되면서 부원과 관리자 사이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 좋은 경험치를 쌓았습니다. 저도 부원의 입장으로 우리의 근무 환경을 지키기 위해 대표해서 관리자에게 말하고 관리자의 요청과 통제는 부원들에게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팀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목소리 내어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이 배움이 나중에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아쉬운 점은 대학생들끼리 근무

자를 꾸려 시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지 않는 문화가 아직도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 충분한 휴게 시간과 급여, 숙식 공간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많이 협의하였고 다른 근무자보다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런 악습을 끊어내려 노력했습니다.

Q. 어떤 학우에게 여름 시즌 아르바이트를 추천하고 싶나요?

개인적으로 수영장이나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하면 이력서를 보고 경력을 따집니다. 하지만 시즌 아르바이트는 경력을 크게 따지지 않기 때문에 신입생이나 관련 경력을 쌓고 싶은 학우라면 시즌 아르바이트를 추천합니다. 시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같이 근무하는 학우와 급속도로 친해져서 잊지 못한 경험을 쌓고 돈도 버는 알찬 방학이 될 수 있습니다.

#시즌 아르바이트

햇살보다 더 뜨거운 훈련의 열정 - 스포츠산업 20 웨이크보드 신현정



훈련 중인 신현정 학우(스포츠산업 20).

#훈련

보통 여름휴가라고 하면 물놀이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항상 물가에 있다 보니까 친구나 가족들을 제 연습장으로 불러서 같이 놀며 휴가를 즐기는 편입니다. 저에게는 함께 즐기는 것이 휴가이기 때문에 개의치 않습니다.

Q. 겨울 방학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다가오는 겨울방학이 지나면 이제 졸업이기 때문에 선수 생활의 2막이 펼쳐지게 될 것 같습니다. 졸업 후에는 실업팀에 들어가서 아시아를 넘어 세계대회에 출전하려고 합니다. 아직 세계대회에 출전한 경험이 없지만 경기 영상을 보고 나서, 5위권 안에 들어가는 것을 다음 목표로 잡게 됐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을 한 만큼 월드 챔피언까지 오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앞으로 있는 대회를 위해 더운 방학임에도 훈련하는 한국체대 학우들에게 함께 힘내자는 격려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선수로서의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 남들과는 다른 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더 큰 웃음을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더 파이팅하고 힘내자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Q. 학기 중 시간표에 맞춰 생활하는 것이 아닌 비교적 자유로운 방학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훈련하십니까?

아침 7시까지 연습장에 도착해서 몸을 풀고 라이딩 훈련을 하게 됩니다. 훈련하면서 찍은 영상을 보면서 영상 분석을 하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또 해외 선수의 시합을 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경기를 하는지 보면서 트렌드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조금 쉬다가 다시 보드를 타고 다시 피드백을 받고, 밥을 먹고, 다시 보드를 타고... 무한 반복으로 훈련을 합니다.(웃음) 학기중에는 거의 훈련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고 불안한데 지금은 비교적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Q. 방학 훈련으로 더 성장하게 된 기술이나 실력이 있나요?

이번 방학에 두 가지 기술에 성공했습니다. 아시아 여자 중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그 두 가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

습니다.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반복된 훈련도 있었지만, 저를 믿고 지원해 주시는 코치님과 부모님, 지인들이 있어서 더 힘이 되었습니다. 사실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소고기였습니다. 선수들끼리 내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 내기 상품이 소고기였고 그 유혹이 너무 강해서 기술을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Q. 훈련에 집중하다 보면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휴가를 오래 떠나거나 완전히 마음 놓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현정 선수만의 방학 중 스트레스 해소, 재충전 방법이 있나요?

기자생각 고마웠던 여름, 고대하는 겨울

한국체대 학우들에게 똑같은 여름 방학의 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쓰임은 각각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이 시간은 재충전의 시간이 되어 쌓인 피로를 푸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부족했던 것을 채우는 값진 시간이 됐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통해 본인의 지난 여름 방학을 다시 떠올려 추억하고 다음 방학을 기대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가장 큰 힘! - 사회체육18 박준이(이하 ‘박’), 특수체육23 서은채(이하 ‘서’)

Q. 방학 동안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셨나요?

박, 서 : 대한배구협회에서 주관한 배구 심판 자격증 C급을 취득하였습니다.

Q. 왜 배구 심판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셨나요?

박 : 저는 ALUV(Amateur League of University Volleyball)이라는 아마추어 대학 배구연맹에서 부위원장이자 대회 운영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회 운영을 할 때 직접 주관하는 대회에서는 대회 운영팀이 심판을 보기도 하고 심판 자격증을 통해 경기 기획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서 :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KB손해보험에서 코트 매니저와 볼리트리버(배구 진행을 돕는 이) 등 배구와 관련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역할로도 배구를 즐기고 싶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Q.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기간과 비용 그리고 난이도가 궁금합니다.

#자격증

심판자격증 이수증을 수료한 박준이 학우(사회체육 18)

박 : 따로 공부해서 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고 5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지는 강습회 동안 이론과 실기 시험을 보는 형식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강습회를 듣기 전에 기초적인 배구 지식이 있다면 충분히 도전할 만한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재학생명서를 제출하면 2만 원을 지원받아 10만 원에 강습회를 듣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서 : 첫날과 둘째 날은 이론으로 나머지 3일은 심판 실기를 보게 됩니다. 중학생부터 중년까지 강습회를 듣는 분들의 연령대가 다양했습니다. 배구에 대한 관심만 있다면 누구든지 취득할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Q.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좋았던 점이나 새롭게 배운 것은 무엇인가요?

박 : 교내 배구 동아리 KUV에서 선수로 배구 경기를 할 때보다 더 풍부한 배구 규칙과 정보들을 배우게 되었고 심판의 입장에서 경기를 바라보는 태도와 자질 등을 배웠습니다. 자격증 취득과 대외활동 등이 구체적인 취업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저의 진로를 구체화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서 :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심판 실기를 볼 때 내가 관정한 것이 맞는지 의심이 되고 위축된 자세로 임했지만, 배우다 보니 간단 있게 관정하는 요령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심판 실기를 배우면서 심판의 능력과 함께 자신감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